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2호
2026년 3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발행인: 황효숙 편집장: 신복레

제35차 평의원 회의, 6월 26일~28일 미니애폴리스 개최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 제 35차 평의원 회의가 오는 6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사흘간 미네소타주 블루밍턴(Bloomington) 소재 Cambria Hotel Mall of America에서 열린다.

평의원 회의는 미주동창회의 최고의 결기구로, 산하 각 지부 평의원들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받고 향후 1년간 추진할 주요 사업과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다. 미주 전역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연대를 다지는 회합의 장이기도 하다.

이번 평의원 회의 개최지는 미네소타의 관문인 Minneapolis-Saint Paul International Airport (MSP)에 인접해 있다. 공항과 호텔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차량으로도 5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호텔 바로 옆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엔터테인먼트 공간인 Mall of America가 자리하고 있다. 500여 개 이상의 매장과 다양한 식음 시설, 실내 테마파크와 대형 수족관을 갖춘 미네소타의 이 상징적 공간은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명소다.

제35차 평의원 회의 등록은 6월 26일(금) 오후 1시에 시작된다. 등록 절

몰 오브 아메리카 바로 옆 Cambria Hotel 서 열려 ‘에디슨상’ 수상 젊은 동문 이진형 박사 기조연설 레이크 크루즈 등 여유에 럭셔리한 낭만도 가득



이진형 박사

차에 이어 동문 간 교류를 위한 리셉션이 마련돼 자유로운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지며, 별도 공간에 동문기업 전시

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이 동문 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폭넓게 접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환영 만찬을 비롯해 장학금 수여식과 공로패 시상식이 진행된다.

27일(토) 오전 9시부터는 제35차 평의원 본회의가 개최되며 같은 날 저녁에는 축하 만찬과 음악회에 이어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이진형(공대95·스탠포드대 교수) 동문이 맡는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뇌진단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LVIS를

설립했으며, 해당 기술은 ‘혁신의 오스카’로 불리는 에디슨상 건강·의료·생명공학 부문 AI 증강진단 영역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자연 명소 Lake Minnetonka에서 펼쳐지는 크루즈 일정 또한 이번 평의원 회의에 기

대를 모으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27일(토)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동문과 가족을 위한 오찬 크루즈가 운영되며, 이후 Mall of America 투어 일정이 함께 진행된다.

28일(일)에도 럭셔리 선상 파티가 열려 동문 간 친목과 교류를 더욱 심화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여유롭게 머물며 미네소타의 럭셔리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평의원 회의는 동문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기사 3면>
글=임동근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 호텔 예약 방법

1. 아래 URL 접속
<https://www.choicehotels.com/reservations/groups/BH88C7>
2. 상단에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 및 투숙 인원(Guest) 수 결정
3. 객실 유형 선택 (1 King Bed 또는 2 Queen Beds, \$129)
Booking Summary 화면에서 Book Room 클릭
4. 투숙객 정보 및 결제 수단 입력

후 예약 완료

※ 미주동창회 홈페이지(snuaa.org)에서도 호텔예약 페이지 접속 가능

■ 공항 교통편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우버나 택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임동근 총무국장

contact@snuaa.org, 612-280-7589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250여 명 참석 ... 양수진 회장 취임



지난 2월 14일 열린 남가주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현장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는 동문과 가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장에 서 납부된 동문 연회비도 2만5천 달러에 달해 동창회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오른쪽 사진은 채규황 전임회장이 양수진 신임회장(오른쪽)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 2027년도 차기회장에는 이찬용(치대 72) 동문이 인준됐다

<관련기사=11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12-280-7589 | Email: contact@snuaa.org

매주 한 챕터씩 1년, 52개 챕터로 완성한 영문 자서전

자전적 에세이 펴낸 미주리주 호민선 동문(상대 59)

이뤄진 자전적 에세이 『A Collection of Stories from MY Life』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것도 모두 영어로 집필했다.

1980년대 뉴욕에서 올 브리너의 ‘왕과 나(The King and I)’, 리처드 버튼의 ‘카멜롯(Camelot)’ 등 브로드웨이의 전설적인 뮤지컬을 직접 관람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부러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CPA 본업보다 더 바쁜 다양한 취미와 신실한 신앙 생활로 ‘평생 심심할 틈이 없었다’는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는 52개의 챕터로도 다 담아내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 유쾌했다. 여전히 열정 가득한 ‘86세 청년’ 호민선 동문.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눈부신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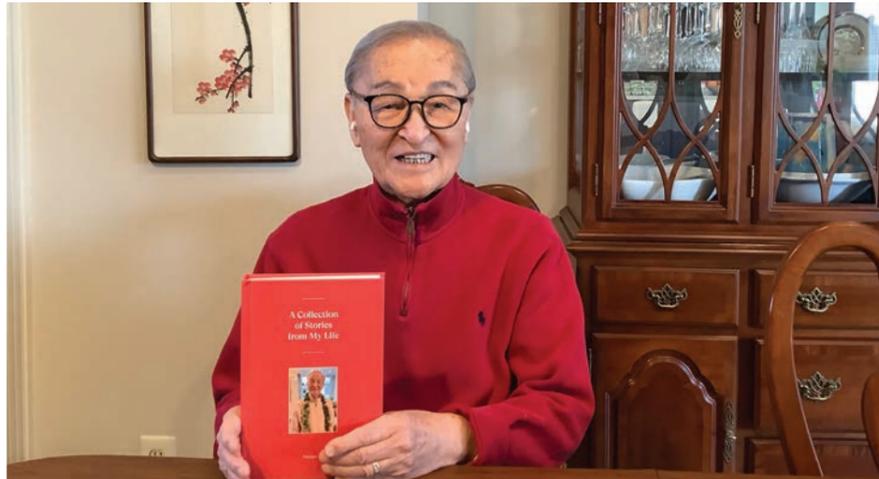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거주하는 호민선(상대 59) 동문과의 인터뷰는 경탄의 연속이었다. 그는 매주 한 챕터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에세이를 집필해 1년여의 대장정 끝에 지난해 12월, 52개의 챕터로

“2023년 4월, 83세 생일을 앞두고 LA에 사는 딸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패키지는 오지 않고 며칠 뒤 필라델피아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삶에 관한 질문을 보낼테니 기억나는 대로 글을 써서 일주일 내에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딸이 자서전 전문 출판사인 스토리워스(Storyworth)와 계약을 맺고 제게 ‘삶을 기록하는’ 선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도착하는 질문을 화두 삼아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기 시작했고, 1년여 씌름 끝에 2024년 5월 말 52개의 챕터를 모두 끝냈습니다.”

자전적 에세이 『A Collection of Stories from MY Life』의 첫 장은 “Have you ever won anything?”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호민선 동문은 이 질문에 1966년 12월 31일의 기억을 떠올렸다. 친구들과의 송년 모임이 사소한 다툼으로 일찍 끝나는 바람에 서울 거리를 배회하다 새로 문을 연 신신백화점에 들러 와이셔츠를 사고 경품권을 받았는데 열흘 뒤 추첨에서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1등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다. 경품으로 받은 고가의 자개장을 누님께 선물했으며 이는 훗날 누님의 훌륭한 혼수품이 되었다는 일화가 첫 챕터에 담겨 있다.

열 번째 챕터에서는 “What is one of your favorite memories of your mother?”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6.25 전쟁 당시 12살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서라도 공부를 시켰던 어머니의 지혜와 결단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꼽았다. 전쟁통에 1년을 참호에서 숨어 지내다 남쪽으로 피란 와 2년 가까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아들은 기독교 고아원에 들어간 지 한 달



호민선 동문이 매주 한 챕터씩 1년여에 걸쳐 마무리한 영문 자전적 에세이 『A Collection of Stories from MY Life』를 들여보이고 있다.

83세 생일 앞두고 딸이 자서전 출판사와 계약 매주 도착하는 질문에 기억 더듬으며 써 내려가 영문 집필이라 쓰고 고치며 전립선암 투병도 잊어 풍부하고 유쾌한 에피소드에 읽는 재미도 ‘쏙쏙’

만에 국가 시험을 거쳐 배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당시의 고아원은 소매치기, 강패, 밀수업자들이 들끓고 폭력이 난무하던 곳이었기에 어린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보냈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경영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돈 없는 고아원 아이도 할 수 있었던 학교 합창단과 남성 4중창단 멤버를 하면서 평생의 즐거움이자 친구가 된 음악도 만날 수 있었고, 정기 예배와 성경 수업을 들으며 그의 영적 삶의 토대를 쌓

을 수 있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진 환경을 견뎌냈던 어머니의 용기가 오늘날 자신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열두번째 챕터 “What do you consider one of your greatest achievements in life?” 에서 그는 주저 없이 서울대학교 입학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을 꼽았다.

“서울대 입학은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내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고아원 덩치 큰 형들의 위협에 소매치기 망을 보러 갔다가 붙잡혀 두들겨 맞

고, 전차 회수권을 뺏겨 지각하며 벌을 받고... 그러면서 점차 소심하고 부정적인 아이로 변해갔는데 서울대에 입학하면서 본래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로 바쁜 와중에도 영어 회화 클럽, 합창단, 등산부, 클래식 감상회 등 수많은 모임에 참여하며 누구보다 활기찬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때 얻은 자신감은 이후 내 삶을 이끈 동력이 됐습니다. 내 인생의 이후 성취들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 풍한산업에서 근무하던 그는 1968년 뉴욕의 한인 가발 수입 도매업체의 General Manager로 스카우트되어 미국 땅을 밟았다.

폴타임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뉴욕 시립대학교(CUNY) 바루크 칼리지(Baruch College)에서 공부해 1976년 회계학 MBA 학위와 함께 CPA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자신의 회계법인을 설립해 2012년 은퇴하기까지 36년간 운영하며 뉴욕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Korean American CPA Society)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업계 발전에 앞장섰다. 한인 은행인 노아은행(Noah Bank) 이사로서 10년 가까이 봉사도 했다.

솔직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감탄한 것은 직업적 성취 보다는 그가 교회와 모교 배재 동문회를 위해 뉴욕에서 두 차례나 대규모 음악회를 기획해 성공시켰다는 것이었다.

1983년 그는 교회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2200석 규모의 쿤즈 칼리지 대강당을 빌려 모차르트의 ‘대관미사곡’을 무대에 올렸다. 합창단 100명, 성악가 8명, 오케스트라 30명이 참여한 이 공연은 객석을 가득



Table of Contents

1. Have you ever won anything? 7	10. What is one of your favorite memories of your mother? 37	21. How did you choose your children's names? 105
2. Who is the funniest person you remember in your family? 9	11. How did you decide when to have children? 43	22. What advice do you wish you had taken from your parents? 109
3. Describe one of your most memorable birthdays. 11	12. What do you consider one of your greatest achievements in life? 47	23. What have been some of your life's greatest surprises? . . 115
4. At what times in your life were you the happiest, and why? 15	13. Who are the best cooks in your family? 55	24. Are you the same person you were as an adolescent, or very different? 123
5. What is some of the best advice your mother ever gave you? 17	14. Tell me about one of the best days you can remember. . . 59	25. What is one of your favorite children's stories? 129
6. What is one of your favorite trips that you've taken? What made it great? 19	15. Have you ever given or been the recipient of a random act of kindness? 67	26. What are some of your family traditions? 133
7. What is one of the bravest things you've ever done, and what was the outcome? 23	16. What is one of the strangest things that has ever happened to you? 75	27. What advice would you give your great grandchildren? . . 137
8. What is your idea of perfect happiness? 29	17. How did you feel when your first child was born? 81	28. What inventions have had the biggest impact on your day-to-day life? 141
9. Are you still friends with any of your friends from high school? How have they changed since then? 33	18. Which fads did you embrace while growing up? 85	29. What are some choices you made about how to raise me? 145
	19. What is one of the most selfless things you have done in life? 89	30. What did you learn from your parents? 149
	20. What are some of your special talents? 99	31. Who is the wisest person you've known?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m? 153



호텔 문 나서면 Mall of America ... 평의원 회의서 함께 즐겨요

제35차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Cambria Hotel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는 Mall of America가 위치해 있다. 1992년 문을 연 이곳은 단일 건물 기준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다. 약 56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공간 안에 500개가 넘는 매장이 이어지고,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건물 한가운데에는 대형 실내 놀이공원이 들어서 있다. 유리 천장 아래를 가로지르는 롤러코스터와 그 아래에서 쇼핑과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의 모습은 Mall of America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일 것이다. 물건을 사러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루를 보내기 위해 일부러 찾는 목적지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연간 3천만 명 이상이 찾는 Mall of America는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관광 목적지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중서부는 물론 타주에서도 이곳을 찾기 위해 일부러 여행 일정을 잡는 방문객이 많은데, 하루나 이틀을 머물며 이 공간 자체를 여행으로 삼는 방문객도 많다.

여기에 미네소타주의 세제 환경도 한몫한다. 의류와 신발에 판매세(sales tax)가 부과되지 않아 동일한 브랜드라도 체감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제35차 평의원회 참가자들에게는 이 거대한 공간이 숙소에서 도보로 연결된다. 공식 일정 사이,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곁에 두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이번 평의원회의가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Mall of America 중앙에 있는 실내 놀이공원.

글=임동근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 매웠고 그가 홀로 판매한 티켓만 800장에 달했다. 2년 후에는 링컨 센터 엘리스 터리 홀을 빌려 배재 개교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주최했는데, 뉴욕 메트의 디바 흥해경과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섭외하고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들까지 초청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합창단을 시작으로 60년 가까이 합창과 중창을 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직접 합창단과 성악가를 섭외하고 오케스트라까지 조직해 대규모 공연을 성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그가 보여준 기획력과 추진력에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멘델스존의 ‘엘리아’까지 3대 오라토리오를 모두 합창해 봤고, 베토벤 교향곡 5번은 당장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수없이 탐독했다”며 “악보를 펼쳐두고 그 선율을 머릿 속으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심심할 틈이 없다”는 말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가 최근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 넣은 해외 선교와 후학 선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이끄는 것이다. 지난 2월 말에도 수단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는 다민족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솔직히 영어로 자서전을 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어를 계속 써온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영어로 쓰냐고 처음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You can do it!’ 진심어린 응원을 했고, 과거 미국인들이 하는 ‘트레스 디아스(Tres Dias)’에서 롤리스타(Rollista)로 봉사할 때 20분 분량의 간증과 강연 원고를 영어로 완성하기 위해 6개월 동안 10편을 새로 쓰고, 40편 가까이 고쳐 썼던 그 고된 훈련을 떠올리며 ‘그래,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한 가장 이타적인 일(What is one of the most selfless things you have done in life?)’로 영어 트레스 디아스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봉사한 것을 꼽았다. 그 소중한 인연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뉴욕 트레스 디아스’가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는데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고, ‘뉴욕 트레스

디아스’는 지난 34년 동안 매년 남성반 2회, 여성반 2회를 운영하며 2500명의 예수님 제자를 배출하는 영적 결실로 이어졌다. ‘생애 가장 용감했던 순간(What is one of the bravest things you’ve ever done, and what was the outcome?)’으로는 78세에 감행했던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1년 선교 사역을 회상했다. 그는 “2~4주의 단기 선교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고령에 1년이나 집을 비우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면서도 “차 없이 생활하며 많이 걸은 덕분에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터키에 가기 전 보다 골프 점수가 좋아졌다”는 유쾌한 농담을 곁들였다. 무엇보다 그 1년의 세월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열방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었으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그에게 선물했다. 2024년 1월, 영문 자서전을 집필하던 중 전립선암 수치가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신약 복음과 25번의 방사선 치료

가 이어졌지만, 매주 출판사에서 보내오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세밀하게 되살리고 사전을 찾아가며 글을 쓰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고 암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지낸 날들이 많았다. 호민선 동문은 “훗날 후손들이 이 책을 통해 자기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고 또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내와 용기로 개척한 삶의 흔적들을 보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라며 “우리 동문들도 자서전을 남겨 이민자의 삶과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 풍성하게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락을 주는 동문들에게는 기꺼이 책 PDF 파일을 공유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호민선 동문은 간호학과 64학번 박연희 동문과 뉴욕에서 인연을 맺어 슬하에 목회 활동을 하는 아들 부부와 애플에 재직 중인 딸, 변호사 사위 그리고 일곱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 그는 2022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5년째 꾸준히 쓰며 현재의 삶도 기록하고 있다. <관계 에세이=17면>



2023년 한국 방문 당시 대나무숲으로 유명한 전남 담양군 죽녹원을 방문한 호민선·호연희 동문 부부. 오른쪽 사진은 맏손자 결혼식 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찍은 기념 사진. 신부 오른쪽 옆이 호민선 동문과 부인 호연희씨다.

2026년도 SNUAA USA Scholarship



(왼쪽부터) 제1호 지명 장학금을 만든 한홍택·백훈 동문 부부. 첫해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매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 김종섭 한국 총동창회장은 두번째 지명 장학금 기탁자로 2023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명 장학금을 기탁한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는 100만 달러 장학금 기부 약정을 했다.

2026년 미주동창회 지명 장학금 7개로 대폭 확대

1인당 1만 달러, 장학생 10명 선발하며 출범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 100만불 기부 약정

2022년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지난 2022년 미주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인 1인당 1만 달러의 장학금을 내걸고 ‘SNU-AA US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했다. 첫해 사업 예산은 5만 달러였으나 장학위원장을 맡은 한홍택(공대 60) 박사가 사재 5만 달러를 쾌척해 1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미 전역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62명의 한인 명문대생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장학위원회는 경제적 조건보다는 학생의 리더십과 학문

적 성취를 중심으로 차세대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엄격히 심사했다. 이어 미주동창회는 그해 6월 열린 평의회 회의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고, 최종 선발된 이들을 서울대 동문 공동체의 가장 젊은 멤버이자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맞이했다.

첫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 이후, 미주동창회는 장학 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부자의 이름을 딴 ‘지명 장학금 (Named Scholarship)’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동문들에게 후배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2024년
서울대 미주동창회 장학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해다. 2023년 지명장학금을 후원한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가 미주동창회에 100만 달러 장학금 기부 약정을 했다. 미주동창회 사상 유례없는 100만 달러 기부로 ‘SNUAA USA Scholarship’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고국화 동문은 “오래전부터 동창회 장학금을 만들고 싶었는데, 미주동창회가 장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잘 운영할 것으로 기대해 결심을 굳히게 됐다”며 “더 늦기 전에 ‘고광국·고국

화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스칼라십’을 만들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동문은 2026년까지 40만 달러를 출연했으며, 2029년까지 100만 달러를 완납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에는 지명 장학금만으로 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기존 ▲한홍택 박사의 ‘한백 장학금’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삼익 장학금’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의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장학금’에 이어, 노명호 16대 미주동창회장과 이상강 17대 미주동창회장이 새로운 지명 장학금 기부자로 이름을 올려 후배 양성의 뜻을 같이했다.

지명 장학금제 도입, 동문 4명 흔쾌히 동참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되며 SNU ISP와 협업

2023년
1인당 1만 달러의 지명 장학금 취지에 공감해 동참 의사를 밝힌 동문들이 늘어나면서, 총 4개의 지명 장학금이 신설됐다.

먼저 2022년 사재 5만 달러를 기부했던 한홍택 박사가 2023년 제1호 지명 장학금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박사는 자신과 부인 백훈(미대 61) 동문의 이름을 따 해당 장학금을 ‘한백 장학금’으로 명명했다.

이어 미시간에 거주하는 고광국(공대 54)·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가 1만 달러를 쾌척하며 지명 장학금 대열에 합류했고, 한국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운영하는 삼익약기의 미주 법인이 세 번째 지명 장학금을 기탁하며 그 뜻을 이었다.

특히 고 유시영(문리대 68) 동문의 부인 유은주씨가 전해온 기탁 소식은 동문 사회에 감동을 전했다.

유 씨는 “남편은 평소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

했다”며 “남편 명의의 지명 장학금이 고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가 되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부고 소식과 1만 달러 체크를 보내왔다. 고 유시영 동문은 생전 동문들을 일일이 찾아 연락하며 2017년 커네티컷 동창회를 창립했으며, 동창회 일이라면 지역을 불문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특히 2022년 11월 투병 중인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주동창회 웹사이트를 관리하며 동창회를 위한 봉사를 멈추지 않았다.

제2회 ‘SNUAA US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실시한 2023년에도 미주동창회 예산 지원과 4개의 지명 장학금으로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무려 1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1대의 치열한 경쟁을 기록했으며, 이를 뚫고 선발된 10명의 젊은 인재들은 차세대 ‘서울대 가족’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2025년
서울대 미주동창회 장학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편됐다. 매년 여름 모교에서 열리는 ‘국제 하계 프로그램(SNU ISP)’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해, 이들이 서울대 캠퍼스에 체류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장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수학하며 자연스럽게 동문으로서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서울대는 미국 명문대

에 재학 중인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주동창회와 모교 양측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SNU ISP는 매년 6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된다. 미주동창회는 2026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장학생 선발을 마쳤으며, 장학생들은 AI 공학부터 한국 문화에 이르기까지 30여 개 강좌 중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



2023년 지명 장학금을 기탁한 고 유시영 동문과 부인 유은주씨. 오른쪽 사진은 2024년 지명 장학금을 후원한 이상강 17대 미주동창회장.

지명 장학금 기탁해주신 동문들



(왼쪽부터) 노명호 16대 미주동창회장은 2024년부터 지명 장학금을 후원했다. 서울대 국제 하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2026년도 새로운 장학 사업에는 18대 미주동창회의 황효숙 회장(맨 왼쪽 사진)과 김권식 상임 고문, 이경애 동문이 새롭게 합류했다. 가운데 사진은 생전 기탁의 뜻을 함께 했던 김권식 동문과 고 황성숙 여사 부부.

서울대 ISP 연계로 새 지평... 글로벌 인재 양성 앞장

올 여름 모교서 5주간 공부, 서울대 가족으로

2026년 2026년도 서울대 국제 하계 프로그램(SNU ISP) 장학생 선발 때는 지명 장학금이 총 7개로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 운영돼 온 ▲한홍택 박사의 '한백 장학금'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삼익 장학금'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의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장학금' ▲노명호 16대 미주동창회장의 '워터 인프라스트럭처 장학금(Water Infrastructure)'에 더해 18대 미주동창회 황효숙(사대 65) 회장과 김권식(공대 61) 상임고문, 그리고 메릴랜드의 이경애(문리대 58) 동문이 새롭게 지명 장학금을 기탁하며 후원 대열에 합류했다.

황효숙 회장은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잠재적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여성 리더십 장학금(Women's Leadership Scholarship)'으로 명명했고 김권식 동문은 지난해 2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고 황성숙 여사와 자신의 이름을 따 '김권식 & 성숙 장학금'을 신설했다.

미네소타 동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미네소타 동창회의 대부' 김권

식 동문은 태양광 발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 EVS를 설립해 태양광과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상위 5위권에 드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성공한 기업가인 그는 육영 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아 과거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초청해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며 미국 문화를 체험케 한 것을 비롯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멘토링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후학들에게 전수해 왔다.

또한 한국의 중소 가족 기업의 경영 승계와 리더십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내의 모교인 이화여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 '패밀리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키로 하며 사회 환원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편, 한홍택 장학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기에는 금액적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주저하는 동문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주동창회의 지명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면 동창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손쉽게 후원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7호 지명 장학금 기탁 이경애(문리대 58) 동문

“어머니의 못다 핀 배움의 꿈 2세 교육 50년 사명감 됐어요”

2026년 SNUAA 스칼라십에 지명 장학금을 기탁한 메릴랜드 이경애(문리대 국문학과 58) 동문은 미주 한인 2세 한국어 교육의 산증인이다.

1970년 6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워싱턴DC에 미국 최초의 토요 한국학교가 문을 열었을 당시, 이 동문은 '한국어 교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땅에 험혈단신 건너왔다. 이후 2010년까지 40년간 교단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은퇴 후 10년은 이사회와 건축 및 장학위원장으로 봉사하며 한인 2세 교육을 위해 반세기를 헌신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국민 포장, 2000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으며 2004년에는 제2회 자랑스런 한민족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동문의 남다른 교육 열정은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기억에서 비롯됐다.

“외할아버지가 1880년대 조선 말기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외교부 참의를 지내신 분인데 어머니가 학교에 보내달라며 3년 내내 매일 밤 정성껏 장문의 붓글씨 편지를 써서 외할아버지 책상에 올려놨지만 끝내 허락을 하지 않아 학교를 가지 못하셨어요. 공부에 한이 맺혔던 어머니는 생전 누구를 만나든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유홍림 모교 총장이 지난해 10월 홈커밍 때 인문대에 2만 달러를 기부한 이경애 동문(오른쪽)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깊이 새겨져 교육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동문은 미주동창회에 1만 달러 장학금을 기부한 것 외에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구에 5만 달러를 기탁해 향후 10년 동안 매년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 1명을 선발해 5000달러의 장학금을 주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홈커밍 행사차 방문한 모교 인문대학에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2만 달러를 기부하고 왔다.

이 동문은 은퇴 이후 글로벌 철드런 과운데이션 후원 이사로서 기금 모금 서울 바자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재단 활동으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SNUAA Samick Scholarship

SNUAA Kwonsik & Sungsook Kim Scholarship

SNUAA Hahn-Paek Scholarship

SNUAA Scholarship

SNUAA Lee & Ro Water Infrastructure Scholarship

SNUAA Kwang & Kook-Wha Koh Science/Engineering Scholarship

SNUAA Scholarship

SNUAA Kyung Ae Lee Leadership Scholarship

SNUAA Hyosook Hwang Women's Leadership Scholarship

SNUAA Scholarship

Arrim Jung

Gloria Cho

Hannah Lee

Isaac Kim

Jaeyi Song

Jennifer Lee

Joy Lee

Lauren Lee

Mia Martinez

Matthew Lee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구에 5만 달러를 기탁해 향후 10년 동안 매년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 1명을 선발해 5000달러의 장학금을 주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홈커밍 행사차 방문한 모교 인문대학에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2만 달러를 기부하고 왔다.

이 동문은 미주동창회에 1만 달러 장학금을 기부한 것 외에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구에 5만 달러를 기탁해 향후 10년 동안 매년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 1명을 선발해 5000달러의 장학금을 주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홈커밍 행사차 방문한 모교 인문대학에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2만 달러를 기부하고 왔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시나요? 양경호 박사를 찾으세요”

한국 중소벤처인의 든든한 길잡이 양경호(공대 83) 동문

덴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의 연구에서 유래되었으며,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를 통해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지난 1월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제1회 SNU Global Connect’ 행사 성공의 가교 역할을 한 양경호(전자공학과 83) 동문과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바로 ‘10년의 법칙’이었다.

‘10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일가를 이루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약 10년에 걸친 노력과 단련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스웨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양경호 박사에게 연락하세요.”

한국 정부와 경제 단체, 그리고 미국 시장을 꿈꾸는 벤처인들이 양 동문에게 두터운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그가 마케터와 과학기술자, 투자자를 아우르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도움이 간절한 이들의 길잡이를 자처하며 10년 넘게 헌신해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귀중한 멘토링은 스타트업 선배로서 후배들을 향한 순수한 봉사에서 시작됐다.

“중소기업에서 R&D를 하면서 세 차례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잘 됐는데 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해 결국 기술을 팔면서 엑시트를 해야 했죠.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지만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후배 과학자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5년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를 설립해 재미한인과학기술자들의 창업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양 동문은 “제가 스타트업에 첫발을 디뎠던 2000년대 초반 해도 도움은 커녕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정보가 없었다”며 “그래서 KITEE를 설립하며 과학기술자, 특허 및 기업 변호사, 투자자, 회계사, 마케팅과 사업 개발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해 누가 찾아오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양 동문에게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깨달음’ 실패의 원인을 물었다. 그는 한마디로 “마켓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부족했다”고 털어놓았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확신을 품은 채 시장에 나섰지만 정작 그 기술이 살아 숨쉬어야 할 시장의 생리와 고객의 마음은 읽지 못했다는 것. 결국 시장을 설득하지 못한 기술은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스타트업을 그만 두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다른 벤처인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그는 훨씬 보람차고 즐거웠다. 매사에 꼼꼼하고 사람에 진심을 다하는 자신의 성격과도 맞았다. 대가 없는 봉사였기에 당장 경제적 이득은 없었지만 미국 현지 펀드레이징과 마케팅을 도운 기업이 보란듯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건 또 다른 기쁨이었다. 그는 웃으며 농담 삼아 “이제 갓 대학 졸업한 23살 청년을 멘토링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나이든 선배와 놀아주니(?) 그것도 고맙다”고 말했다.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를 시작으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는 US-Korea Conference(UKC) 스타트업 경연대회 위원장, UKC In-



양경호 동문이 SNU 글로벌 커넥트에서 참가 동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경호 동문이 2025년 11월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의 빈트 서프 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국 기술기업 닷(대표 김주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소개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 스타트업 네트워킹에 10년 봉사하니 신뢰로 되돌아온 한국-가나 협력 프로젝트 매달 9명의 한인 창업가, 줌으로 일대일 멘토링

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심포지엄 위원장,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artner's Upscale 프로그램 (STEP-UP) 위원장 등을 수차례 맡았으며, 그리고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총괄 프로그램 위원장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글로벌사업본부장까지... 봉사로 이어진 10년의 세월이 흘러 그는 지금 새로운 명함을 갖게 됐다.

아프리카 가나 수도 인근에 957에이커 규모로 들어설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빌라세스티(Vilacesti) 프로젝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CSO(최고 전략책임가)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양 동문은 “한국과 가나의 협력 프로젝트로 2028년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과 함께 한 각종 프로그램의 위원장을 맡아 한 봉사활동이 신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직에 계신 분이 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직접 연결해 주신 덕분에 제 역량으로는 만나기 힘들었던 분도 만날 수 있었고, 정부 부처는 물론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 온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프리카 시장에 맞는 중소벤처기업들을 합류시켜, 아프리카 진출의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빌라세스티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한 건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세계적인 정보통신 학자이자 발명가인 빅터 로렌스 박사였다.

벨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며 현대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초석을 다진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국립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됐으며 2025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과학기술계 최고 영예인 ‘국가 기술 혁신 메달’을 받았다. 또한 아프리카 모든 해안 국가를 세계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대규모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진두지휘해 대륙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혁신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양경호 동문에게 로렌스 박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의 존재다. 때로는 해안을 빌려주는 멘토이고 때로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이며, 현재 양 동문이 구축한 미국 주류 사회 네트워크 또한 로렌스 박사와의 깊은 신뢰와 유대에서 시작됐다.

“1996년 벨 연구소에 포닥(Post-Doc)으로 갔다가 정식 오퍼를 받아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제 멘토가 로렌스 박사님이셨습니다. 빌라세스티 프로젝트는 로렌스 박사님이 미국과 가나의 협력 모델로 처음 구상했던 것인데, 제가 한국 측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지금의 한국-가나 프로젝트로 바뀌게 됐습니다.”

‘10년의 법칙’. 대가 없는 헌신과 진심을 다한 네트워킹으로 묵묵히 이어온 그의 10년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참 많은 봉사를 해왔지만, 돌아켜보면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혜택들도 많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알게 되고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그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하는 기회도 얻고...”

그는 지금도 매달 9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줌으로 만나 일대일 멘토링을 이어가고 있다.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 9명이 됐고 어떤 때는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내주며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칭 발표를 봐준다. 양 동문은 ‘SNU Global Connect’ 행사 성공 이후 미주동창회 내에 ‘EDGE 이니셔티브’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의 뜨거운 열기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협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특히 EDGE는 선배들의 경험과 네트워크, 젊은 세대의 혁신을 연결해 세대간의 긴밀한 동문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동문은 “요즘 일정이 눈에 띄게 바빠지면서 EDGE를 이끌어가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동창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기쁨을 주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 미주동창회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빛나는 동문들, 그리고 연결의 힘

글로벌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 대학 동문 네트워크는 더 이상 단순한 친목 단체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SNUAA)가 추진하는 EDGE(Entrepreneurship, Dialogue, Growth, Expansion)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범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다.

EDGE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출신 창업가, 투자자, 기

술 리더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과 차세대 동문들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자본·기회가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월 말 SNUAA EDGE 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으며, 위원회는 서울대 출신의 성공한 창업가,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기관장 등을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월 관련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양경호 SNUAA EDGE 위원회 위원장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 주역들

지난 20여 년간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공지능(AI), SaaS, 로봇틱스,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실리콘밸리, 뉴욕, 보스턴 등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생태계 안에서 서울대 동문들 또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서울대를 졸업한 동문들은 글로벌 기술기업 창업의 최전선에서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샌드버드(Sendbird)의 김동신 대표(전기정보공학부)가 있다. 샌드버드는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에 채팅·메시징 인프라를 제공하며 B2B SaaS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몰로코(Moloco)의 안익진 대표(컴퓨터공학)는 머신러닝 기반 광고·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이끌고 있다.

베어 로봇틱스(Bear Robotics)의 하정우 대표(컴퓨터공학)는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상용화하며 로봇틱스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또한 차트메트릭(Chartmetric)의 조성문 대표(전기전자컴퓨터공학)는 음악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동부에는 뉴욕, 보스턴 등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창업한 동문들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로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보스턴으로 건너가 바이오 기업 제노스코(Genosco)를 창업한 고종성 대표(화학교육 75학번)를 들 수 있다. 제노스코는 항암제 신약 개발에 집중해 온 바이오텍으로,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Lazertinib)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았으며,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형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로 이어지며 한국 바이오 벤처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들의 성과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결과가 아니다. 탄탄한 공학적 기반, 문제를 구조화하는 능력,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다. 특히 미국 시장은 기술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제품-시장 적합성(Product-Market Fit)을 검증하고,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이들 서울대 동문 창업가들은 이러한 복합적 조건을 충족시키며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

투자자와 네트워크의 힘

투자 영역에서도 서울대 동문들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GFT Ventures의 음제훈 대표(Jay Eum, 화학과 88학번)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인 벤처투자

글로벌 기술기업 창업 동문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 안익진 몰로코 대표, 하정우 베어 로봇틱스 대표,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

벤처 투자자 동문들



음제훈 GFT Ventures 대표(왼쪽)와 최인규 스프링캠프 대표.

자로,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전략적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창업자의 장기적 성장을 돕는 '스마트 머니' 역할을 수행하며 한미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인 스프링캠프의 최인규 대표(컴퓨터공학, 99학번)도 2024년 실리콘 밸리에 진출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전역에는 액셀러레이터 운영자, 엔젤 투자자, 대기업 CVC 담당자, 기술 임원, 데이터 과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동문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창업 성공 사례 못지않게, 이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는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연결될 때 비로소 커지는 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개별적으로 성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발생하는 집단적 힘이다. 미국 내 동문 창업가와 투자자가 한국의 창업가, 연구자, 기업과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단순한 시장 진출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 파일럿 프로젝트, 공동 투자 구조 설계 등 보다 입체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 시장 접근성을 결합하면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성공한 창업가는 후배들에게 실질적 멘토링과 시장 통찰을 제공하고, 투자자 동문들은 초기 자금과 후속 라운드 연결을 지원한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될 때, 동문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

SNUAA EDGE의 역할과 과제

이러한 맥락에서 SNUAA EDGE는 동문 간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EDGE는 서울대 출신 창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차세대 도전자를 연결해 경험과 자본, 기회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공은 프로그램의 존재가 아니라,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력에 달려 있다.

서울대 동문 사회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문과 한국의 동문을 전략적으로 연결할 때,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SNUAA EDGE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미 축적된 동문들의 성취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면, 이는 한미 간 기술·자본·인재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EDGE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서울대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24년 8월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서울대 교수들과 지역 젊은 동문들의 네트워킹 행사. 양경호 동문이 기획, 준비했다.

“From Lord Jim, John Profumo to Golfer Anthony Kim” Profiles in Redemption : Rising from the Ashes



조중행
(의대 63 · 시카고)

1. Abandoning Our Ships in Mid Life

To live is to cross an endless sea, sailing through waves, both gentle and fierce. Yet at times, when faced with storms beyond our strength, we falter. When Conrad's Lord Jim abandoned the sinking Patna, leaving the passengers behind, his act was not mere cowardice—it was an admission of the fragile clay from which we are all made.

We ordinary souls patch our cracked dignity through daily repentance, prayer, and quiet perseverance. But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spotlight, a single error can swell into a tidal wave that drowns their entire existence. In my life time, I have seen many names, maybe too many, erased under the weight of public scorn—men and women who could not bear the shattering of honor so easily broken as glass. Each tragedy reminds me that human dignity, though precious, is perilously brittle.

2. The Golfer Anthony Kim's 63 The Awakened Winter after the long hibernation



Injuries and substance issues robbed Anthony Kim of much of his prime. After two forgettable years on LIV, he won in Australia.

Last weekend, in the stillness of winter, my television flickered with an image that startled me, a perpetually poor golfer, from numbness: Anthony Kim standing beneath the fierce sun of Adelaide. Fourteen years had passed since this young prodigy vanished from golf's fairways of the world, swallowed by injuries and the shadows of addiction. And yet there he was again, striking the ball as if invoking life itself.

His final round was almost divine—birdie after birdie, ending six strokes under par, outpacing Jon Rahm with a miraculous 63. But it was not the number that brought tears to many; it was his face. The lines of pain, the residue of years spent in struggle, the quiet glance he gave his wife and small daughter—there no arrogance left. There were humility, and a reverent respect for being alive.

In his press conference he said a little, yet every gesture confessed more than words could: we could see, not the intoxication of fame, but the sobriety of a man who had stared at the bottom and climbed back with trembling hands.

3. The Redemption of Fallen Honor from the ground level

Salvation is not the restoration of splendor, but the rediscovery of humility. John Profumo, once the proud young politician, Oxford bred defense minister of Britain, plunged into disgrace after a sex-scandal in 1963. For thirty some years, he served in the slums of London, scrubbing toilets and washing dishes at Toynbee Hall.



John Profumo, whose high-flying political career in Britain ended in a cold war scandal of sex and espionage, devoted his remaining years to atonement before passing away at 91.

He did this not for atonement's show, but to reclaim the quiet dignity of being human. When, decades later, in 1994, Margaret Thatcher invited him as a national hero to sit beside the Queen at her 70th birthday, it was not power returned, but the easing of a soul's long burden.

I think also of Michael Milken, who turned from financial infamy toward medical research and education; and of historian Joseph Ellis, who, though disgraced for falsifying his war record, continued to labor in scholarship without pay even into his eighth decade. They must have understood that a stained name can be cleansed only with the saltwater of sincere devotion.

4. Judgment and the Chance to Begin Again with Hope

Still, I carry questions heavy in my heart. I think of the once brilliant mathematician, ex-prof. Ka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mprisoned several years for the moral failure, and of Do Kwon, the young creator of the cryptocurrency Terra, recently sentenced to fifteen years in a New York courtroom.



Do Kwon, who created the Luna and TerraUSD cryptocurrencies that collapsed in 2022, pleaded guilty to two counts of fraud.

Judge Paul Engelmayer spoke to Do Kwon that day with rare humanity, urging him to thank his wife and daughter who pleaded for mercy, and to return to society with purpose & devote his later life to service when his term ends. It was more than a legal sentence; it was an invitation to choose redemption. May this man, when he finally steps into the light again, find within himself the same fierce will to rise that brought Anthony Kim back to life.

5. Epilogue: Awaiting the Final Report Card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I have repeated this proverb across the decades. Yet I have learned something further: forgiveness from others, though precious, is incomplete. True redemption is arriving at a state where one can once again look into the mirror and not turn away.

When the evening of our lives finally close, the dusk is no abstraction—I often imagine what kind of final report card to be laid quietly upon my heart.

The return of Anthony Kim stirred many because it whispered this possibility: that even after long winters, life may yet begin anew. And for me, an old man watching that hope is no small consolation.

AIoT 시대 왔지만 ... 확산 걸림돌은 '무선 네트워킹 불안정성'

SNU 2월 포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



이용환 (공대 전기공학과 73)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하이비 (HyBee) 창업, 대표이사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워싱턴주 동창회가 매달 줌(Zoom)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SNU 포럼'의 2월 강연 주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서비스 네트워크'였다. 'AIoT'란 사물인터넷(IoT)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개념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명령을 수행하던 기존 사물인터넷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두뇌(AI)'를 갖추게 되면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상황에 맞춰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산업 현장에 AIoT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시스템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본사를 둔 무선 네트워킹 솔루션 기업 하이비(hyBee)의 창업자 겸 대표이사인 이용환 박사(공대 전기공학과 73)가 강연자로 초청됐다. 이 박사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거쳐 2015년 하이비를 창업했다.

사물인터넷(IoT)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초기 센서 네트워크와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시작된 IoT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AIoT'로 진화하며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무선은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 박사는 현재 AIoT 서비스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무선 커넥티비티(Connectivity)의 불안정성'을 지목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블루투스(BLE), 지그비(ZigBee), 와이파이(WLAN), 로라(LoRa) 등의 기술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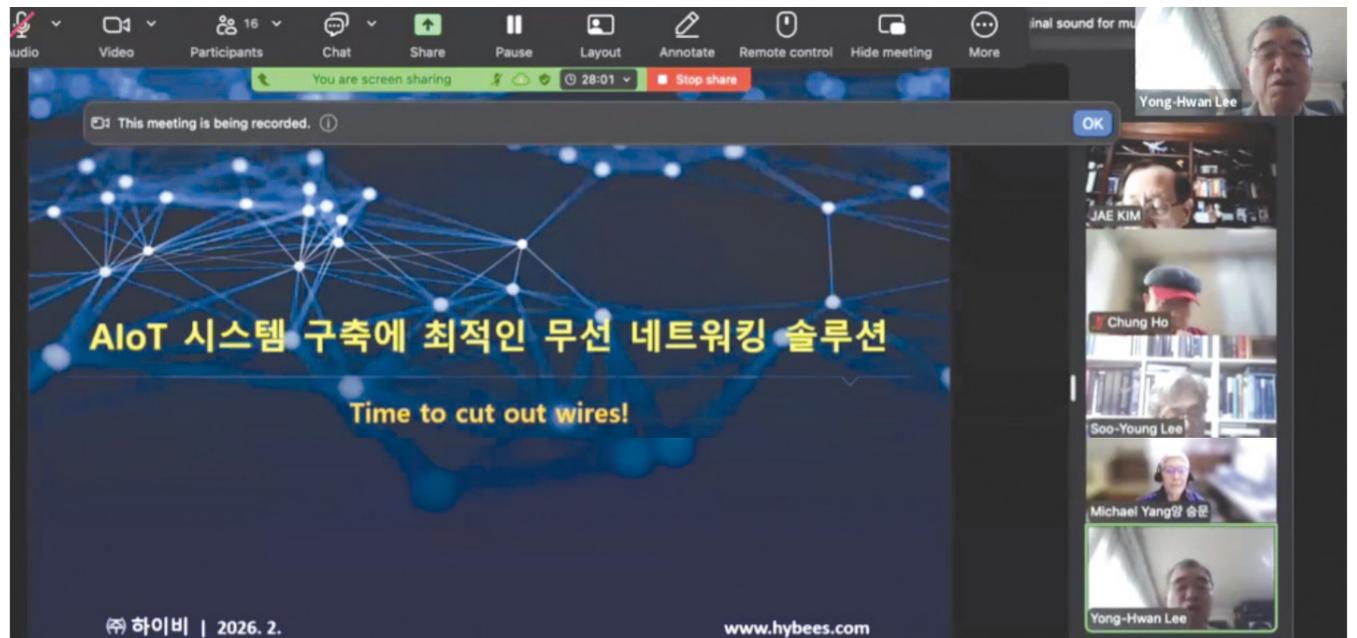
가장 큰 문제는 '장애물'과 '간섭'이다. 이 박사는 "셀룰러폰이 지하에서 터지지 않듯, 공장이나 대형 빌딩의 철관과 설비들은 무선 신호를 차단한다"며, "특히 사람이 밀집한 강남역이나 CES 전시장 같은 곳에서 무선 이어폰이 끊기는 현상은 일대일 통신조차 간섭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일상적인 음악 감상이라면 잠시 끊겨도 그만이지만, 제조 공정이나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한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통신 장애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 때 발생하는 '확장성(Scalability)' 문제도 심각하다. 가정 내에서 등기구 몇 개를 제어할 때는 문제가 없던 기술도, 기기 수가 수십·수백 개로 늘어나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박사는 '복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한 후 시스템이 100% 자동 복구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야 한다"며, 이는 운영 비용 상승과 가동 중단 시간(Downtime)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패 패턴 중 하나는 'POC(Proof of Concept, 기술 검증) 단계의 성공'이다. 소규모 테스트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던 기술이 실제 대규모 현장에 적용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게이트웨이(Gateway)를 중복 설치하거나 중계기를 추가 배치하곤 한다.

이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음영 지역을 없애기 위해 장비를 계속 추가하다 보면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온다"며 무선 IoT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의 무선 기술들이



지난 2월14일 열린 SNU포럼 강연에서 하이비 창업자 겸 대표인 이용환 박사(줌 화면 맨 위 오른쪽)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를 주제로 동문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와이파이 등 기존 기술들, 간섭과 장애물에 취약 하이비, 30여 개 특허로 끊기지 않는 솔루션 구현 글로벌 시장 확대 위한 투자·전략적 파트너십 제안

'전송 거리'나 '데이터 용량' 같은 단편적인 성능(Figure)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AIoT 네트워크는 신뢰성, 유연성, 확장성을 모두 갖춘 '인프라(Infrastructure)'로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박사는 "간섭이 발생해도 스스로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셀프 네트워킹(Self-networking)과 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되는 셀프 힐링(Self-healing) 기능이 필수적"이라며, "어떤 환경에서도 끊기지 않는 무선 연결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디지털 전환(DX)과 AI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30여 개의 특허 기술이 집약된 자사의 무선 네트워킹 기술이 기존 무선 IoT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해 공장, 빌딩, 농장 등 복잡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와이파이나 셀룰러 방식이 지지국과 단말기가 일대일로 연결되는 '스타(Star) 구조'인 것과 달리, 하이비의 기술은 가지를 치듯 뻗어 나가는 트리 구조 기반의 다중홉(Multi-hop)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최대 64홉, 반경 약 3km에 달하는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있어도 우회 경로를 통해 음영 지역 없는 안정적

인 통신을 보장한다.

이 박사는 "2018~19년 CES 현장에서도 유일하게 라이브 데모를 성공했을 만큼 간섭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통신 장애, 정전이 일어나도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즉시 복구되며, 특히 라우터와 엔드 디바이스의 역할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롤 스위칭(Role Switching)' 특허 기술로 배터리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이비의 솔루션은 이미 태양광 발전소, 스마트 공장, 선박 시설 관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검증을 마쳤다. 이 박사는 "게이트웨이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2,000개 이상의 단말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운영할 수 있다"며, 설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B2B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하이비의 무선 기술이 현대자동차, LS일렉트릭, 포스코 등 국내의 주요 대기업의 현장 난제를 해결하며, 기존 무선 통신의 한계를 극복한 산업용 네트워킹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차량 내 시트·도어·윈도우 등 비임계 제어 장치들을 무

선으로 연결해 차체 무게를 약 30kg 줄이고 배선의 복잡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기존 블루투스 메시(Bluetooth Mesh) 기술로는 통신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하이비의 기술을 도입한 결과 간섭 환경에서도 100%의 전송률과 50ms대의 낮은 지연 시간을 기록하며 기술 검증(PoC)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포스코 제철소는 생산 품목에 따라 매년 라인을 재구성해야 하는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이비의 무선 솔루션은 별도의 복잡한 배선 공사 없이도 센서와 기기를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해 설비 운용 효율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농업 현장에서도 하이비의 무선 네트워킹 기술은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아보카도 농장에서는 전력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서 태양광 모듈 노드를 구축하고 AI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연간 8만 달러에 달하던 용수 비용을 2만 5천 달러로 70% 가까이 절감하며 1년 미만의 신속한 투자 회수(ROI)를 달성했다. 강원 양양 방울토마토 재배단지에서는 수분 센서를 정밀하게 배치해 급수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스테비아 토마토 수준의 고품질(13브릭스)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 농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박사는 강연 말미에 산업 현장에서 입증된 하이비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미래 A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샤인 기부.
당신이 만드는
빛나는 변화

You are my SNUshine!

미주에서 보내주신 마음, 바다를 건너 서울대에 닿았습니다.

서울대를 밝히는 가장 작은 움직임, 당신의 기부에서 시작됩니다.
블록 하나 하나를 쌓아가듯,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서울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샤인기부에 \$300이상(1회) 참여하는
후원자님께 웰컴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우측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TEL 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샤인 굿즈 자세히 보기
snu.or.kr/snushine

샤인 기부 참여하기
snu.or.kr/snushine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우측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TEL 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채규황 이임회장(오른쪽)이 한미특수교육센터 로사 장 소장에게 신년음악회 수익금 1만 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양수진 회장과 심재호 동문이 소속된 한인클래식기타협회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동창회 선언

한미특수교육센터에 1만 달러 기부
현장 납부 회비 2만5000불, 역대 최고

지난 2월 14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이날 제51대 회장으로 취임한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은 반세기가 넘는 동창회 역사상 세 번째 여성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개최 장소 또한 처음으로 LA를 벗어나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다. 호텔이 아닌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펼쳐진 행사는 통유리 너머로 그린의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품격 있는 분위기 속에 진행돼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동문끼리의 잔치’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창회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 아동을 돕고 있는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에 1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다. 채규황(법대 69) 이임회장이 직접 수표를 전달해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4일 신년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동창회가 한인 커뮤니티 봉사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양수진 신임 회장은 내년 신년음악회 수익금 역시 치매 어르신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혀 큰 지지를 받았다.

새 회장단은 커뮤니티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을 초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대 동문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인회도 동창회와 협력해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또 하나의 기록은 축하 후원금 규모였다. 나용화(생과대 79) 신임 재무국장에 따르면 총 3만6천 달러가 모금돼 예년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나용화, 이현림(음대 81), 송미선(음대 89) 동문 등 새 임원진과 80학번 동기들, 관악세대 등 비교적 젊은 세대가 대거 동참해 세대교체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현장에서 납부된 동문 연회비도 2만5천 달러에 달해 동창회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행사장에는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며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이현림 사업국장이 후원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념 반지를 끼워주며 감사를 전한 것이다. 세심한 배려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인 순간이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회원카드 역시 51대 회장단의 야심작이다.

심재호(공대 75) 지역봉사위원장과 김우정(공대 84) 부총무가 며칠 밤을 새워 제작한 QR코드 기반 카드에는 동문 인적사항이 담겼다. 특히 제휴 동문업소 이용 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1호 제휴업소는 이용훈(수의대 81) 동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회원 업소를 유치해 동문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026년 동창회 모토 선포였다. 양 회장이 “너와 나, 우리 사이 정들자”라고 선언하자 우레 같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대의 벽을 허물고 모든 동문이 하나 되자는 다짐의 순간이었다.

새 임원진 구성도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했다. 80년대 학번이 주축을 이루되, 70년대 학번 3명과 60년대 학번 2명을 포함해 세대 간 균형을 이뤘다.

기록과 변화, 그리고 나눔이 어우러진 이날 행사는 남가주 총동창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양수진(간호대 80) 신임 회장 취임

‘너와 나, 우리 사이 정들자’ 선언

정기총회가 끝난 뒤 양수진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전체 동문들에게 총회 후기와 신임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며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양 신임 회장의 포부를 중심으로 이메일 내용을 소개한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동문 여러분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제가 제51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지지를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의 모습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날까지 ‘과연 내가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불안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제51대 회장단의 모토는 ‘우리 사이 정들자’입니다. 세대의 벽을 넘어 하나 되고 화합하는 동창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티 사랑방

지역별 소공동체 모임인 ‘시티 사랑방’을 돕고, 동호회의 활성화와 상부상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인력과 재원이 허락하면 ‘사랑방 팟캐스트’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 멤버십 카드

이번 총회 참석자 전원에게는 QR코드가 포함된 회원카드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한인 운영 업소들과 제휴해 회원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 로봇 캠프 개최

초등학생들과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로봇 캠프도 준비 중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로봇지도의 경험을 만들어주고 초등학생에게는 로봇을 경험하는 멋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



남가주 총동창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양수진 동문.

홍택 박사님이 제공으로 100여 대의 로봇을 확보했으며, 장소는 세리토스 동창회관입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분야인 로봇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특히 동문 자녀와 손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최고 경영자반(AMP) 개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올 하반기 남가주에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이 개설된다는 점입니다. 1976년 한국에서 시작된 이 과정은 그동안 6천여 명의 글로벌 리더를 배출한 명문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서울대 동문 자격을 얻게 되어, 동창회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총회에도 많은 분들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서울대 공동체의 희망이 됩니다. 동문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하고 따뜻한 동창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품 추첨에서 대상(현금 \$100x10)에 당첨된 고윤석(공대 52) 동문이 김진국(의대 65) 동문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SNU Global Connect 행사 보고

모교·총동창회와 협력 ... 서울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 논의

지난 1월,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정기 모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 달 CES 2026 기간 중 라스베가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SNU Global Connect @ CES 2026' 행사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양경호 동문(공대 83)은 행사의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홍택 동문(공대 60)이 2025년 11월 26일 제안한 아이디어가 불과 6주 만에 77명의 참석자가 모인 대규모 행사로 구체화된 과정은 그 자체로 놀라운 성과였다. 특히

창업네트워크 회원 대부분이 조직위원회로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양 동문은 행사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전체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8점, 타인 추천 의향은 9.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젊은 동문들로부터 "동문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 신기하고 즐거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조직위원회는 이처럼 창업 분야 동문 네트워킹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행사 참석자 통계도 흥미로웠다. 공대출신이 62%를 차지했고, 1980년대 학번이 22.5%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 분야로는 AI(10.7%), 모빌리티/로봇(14.3%), 바이오/헬스케어(17.9%)가 주를 이뤘다. 창업가가 28.6%, 학생이 8.3%, 투자자/엑셀러레이터가 7.1%를 차지해 균형 잡힌 구성을 보였다.

양 동문은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EDGE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or Global Expansion)'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서울대미주동창회는 'SNU Global Connect @ CES'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본교 및 총동창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스폰서와 참가자를 유치해 서울대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창업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57학번부터 15학번까지 ... 함께해서 즐거웠던 새해 출발

워싱턴주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월 7일 토요일, 임헌민(공대 84) 동문 댁에서 동문 가족 모두의 밝고 따뜻한 한 해를 기원하는 신년하례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동문과 가족을 포함해 총 56명이 참석하였으며, 57학번부터 15학번까지 두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져 더욱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다.

행사는 정오에 시작되었다. 동문과 가족들이 도착하는 대로 삼삼오오 모여 동문회에서 준비한 와인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다. 12시 30분경 대부분의 참석자가 도착하자 본격적인 신년하례회가 시작되었다.

이정관(농대 83) 회장이 환영 인사를 전한 뒤, 참석자들은 거실에 둘러앉아서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이번 모임의 최고 연장자인 최준한(농대 57) 동문은 후배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하고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하였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예년보다 많은 참석자들로 인해 그동안 넓게 보이던 거실이 이날만큼은 가득 차 보였으며, 계속해서 도착하는 동문들 덕분에 사진 촬영 내내 웃음이 이어졌다.

식전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과 임헌민 동문 댁에서 마련한 밥, 수육, 김치, 음료, 그리고 동문회에서 준비한 불고기 및 시루떡이 더해져 풍성한 설날 잔



임헌민 전 회장 집에 모인 워싱턴주 동문들이 손을 들어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임헌민 전 동창회장 집에 동문·가족 56명 모여 웃음꽃 피우며 가족같은 동문에 나눠 허정덕 동문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감동

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식사 후에는 식후 행사가 이어졌다. 이정관 회장이 행사를 열며 인사를 전한 뒤, 그동안 장학회장으로 헌신해 온 김재훈(공대 72·1대 장학회장) 동문과 이명자(간호대 74·2대 장학회장) 동문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참석자들은 두 분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이번 모임에 처음 참석한 여섯 동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

되었다. 그중에는 출산을 각각 한 주 또는 한 달 앞둔 가정도 있어 참석자들이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였다.

특별 공연 순서에서는 허정덕(음대 96) 동문이 부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이제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 감동을 전하였다. 허 동문은 개척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워싱턴한인선교협창단을 이끌고 있다. 이어 김진영(공대 99) 동문이 음악감

상 동호회를 소개하며 곧 있을 모임에 동문들을 초대하였다.

마지막 순서로는 워싱턴주 신년하례회에서 매년 즐거움을 주는 윷놀이가 진행되었다. 두 명씩 팀을 이루어 네 그룹이 동시에 경기를 펼쳤으며, 워싱턴주 특유의 규칙을 적용해 더욱 흥미로운 게임이 되었다. 특히, 각 그룹에서 일등과 꼴등에 상품을 주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일등 경쟁에서 떨어진 팀들이 오히려 꼴등을 노리며 즐겁게 게임을 이어가는 모습은 큰 웃음을 자아냈다.

오후 4시경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나누고 다음 동문회 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글=박한규(공대 91)· 사진=최현주(공대 89)



장학회장으로 헌신해 공로패를 받은 김재훈(맨 왼쪽) 동문과 이명자(왼쪽에서 세번째) 동문. 가운데 사진은 부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 감동을 준 허정덕 동문. 신년하례식 전통이 된 윷놀이 삼매경에 빠진 동문들.

설날 만두 함께 빚으며 '서울대학교 오행시' 웃음꽃

하트랜드 지부

미국에 살다 보면 설날을 두고 'Chinese New Year' 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 한켠이 찝찝해지죠. 중국만의 명절이 아니라, 음력을 새해로 기념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이기에 저는 조용히 "Lunar New Year" 라고 정정하곤 합니다.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긴 하지만, 그때 세운 결심이 한 달 남짓 지나면 슬그머니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날은 한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참 고마운 명절입니다.

설날을 앞둔 지난 2월15일 하트랜드 동창회는 호민선 선배님(상대 59)의 유쾌하면서도 노련한 사회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를 주제로 한 오행시 대회였습니다. 총 11편의 오행시가 출품되었고, 장원·차석·차차석·장려상·아차상까지 시상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심사였습니다. 심사위원 두 분이 머리를 쥐어뜯어도 도무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작품 하나하나가 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낭독 심사' 라는 최후의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참가자 한 분 한 분이 직접 자신의 오행시를 읊으며 감정을 담아내자, 현장은 금세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꼽을 잡게 만드는 재치 만점의 시부터,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진심 어린 시까지— "서울대인은 공부만 잘한다" 는 편견이 있다면, 이날로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마음까지 한층 풍요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만두 빚기 시간은 또 하나의



하트랜드 지부 동문들이 설날을 앞둔 지난 15일 함께 모여 만두를 빚으며 '서울대학교' 오행시 대회로 웃음과 감동을 나눴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도란도란 상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으며, 아재 개그부터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만두 속에 정을 넣듯 친목도 함께 빚어갔습니다. 정성 가득한 떡만둣국에 더해, 이주현 회장님의 남편 데니스 조의 특식 'smoked pork belly' 까지 곁들여진 저녁 식사는 몸과 마음을 모두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한 시간 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해 준 진찬우 동문(사회과학대 07) 가족, 언제나 모든 행사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구명순 이사장님(간호대 66), 동창회의 든든한 손발이 되어주시는 김경운 동문(사대 00) 부부, 웃음과 에너지로 자리를 밝히는 노정희 선배님(음대 88) 부부, 멋진 사진으로 동창회를 빛내주신 한혜승 선배님(공대 91), 그리고 '자서전 전도사' 호민선 선배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날의 따뜻한 의미처럼, 이날의 만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또 하나의 좋은 새해 출발이었습니다.

글=이주현(미대 92) 지부 회장
사진=한혜승(공대 91)



'서울대학교' 오행시 대회 수상 동문들이 상품을 전달 받고 호민선 심사위원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서울대학교' 오행시 수상작

장원: 한혜승 (공대 건축학과 91)

서글픈 하루하루가 그대의 삶을 얼룩지더라도
울지 말아요, 그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며
학수고대하는 소원을 빌어보아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가 빌어보아요, 혹시 알아요?

차석: 성수진(진찬우 동문 부인)

서울의 밤거리가 그림습니다
울엄마 아빠도 보고 싶습니다
대명절 설이 되니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교차림 없이 식탁에 앉던 그 시절이 그림습니다.

차차석: 구명순(간호대 66)

서운한 마음으로 서울을 떠나
울긋불긋 번쩍이는 뉴욕의 네온을 보며
대단히 놀라 미국은 다 이런가 생각하며
학수고대 하트랜드에 내려오니
교통도 조용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곳이 바로 내 미국 고향
캔사스시티 이구나!

장려상: 진찬우(사회과학대 07)

서운하시다구요?
울화병 초기이십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학~실한
교감만이 처방약입니다

아차상: 이주현(미대 92)

서울대학교를 거닐다가
울컥하는 옛 생각에
대문 앞에 서성입니다
학문도, 친구도, 웃음도 가득했던
교정 앞에 멍멍히 머물러 봅니다

뇌 훈련 퀴즈, 속담 맞춰 보세요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가 치매 예방을 위해 제작한 '뇌 훈련 퀴즈' 시리즈가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뇌 미인 트레이닝 - 치매예방학습지'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는데 주의집중력, 기억력 시공간능력, 계산력, 전두엽기능과 더불어 언어능력의 다양한 문제를 수록해 12주간 매일 20분씩 인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 능력을 키우는 문제 중 초성 자음과 단어로 속담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 단체 카톡방에 "3개는 맞춰야 치매가 아니라네요" "7개 이상 맞추면 100세까지는 치매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라는 격려 글과 함께 속담 퀴즈 문제가 올라와 활발한 대화가 오갔다. 재미 삼아 풀어보시길 권하며 문제를 소개한다.

1. 니코기석자
2. 디로삼코기쓰로빨니다
3. 디로즈기로로받니다
4. 따즈기흥오치기
5. 모리흥니오날버르
6. 비비디비기오더커디
7. 비주기오즈다
8. 비즈즈도모디모났다
9. 시기이모오면배가산으로간다
10. 사디기삼니오모포오을을니다
11. 흥리기오지비모시오즈모리다
12. 시니오면기사디비흥다



정답: 1. 내 코가 석 자 2. 달면 삼키고 쓰면 빨는다 3. 뒤로 주고 말로 받는다 4. 팥 짚고 헤엄치기 5. 마른 하늘에 날벼락 6.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7. 병주고 약 준다 8.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10.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11.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12.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청년 마르크스가 살았던 파리 바노가 23번지(23 RUE VANEAU). 마르크스가 살았다는 흔적도 없는 그 건물에 앞에 선 정태영 동문. 오른쪽 사진은 런던 하이게이트 공원 안에 있는 마르크스의 묘비.

데카르트 거리는 있는데, 마르크스 거리는 없다

정태영 동문(문리대 7기)의 파리 사상(思想) 기행, 마르크스 흔적을 찾아서

양의 빛이 건물 사이에 길게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다. 햇빛은 건물 사이로 가늘고 긴 줄무늬를 그리며 흘러내렸고, 그 빛을 등에 진 건물들은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거리는 적막했다.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마르크스의 유적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파리에서 그래도 마르크스가 살았던 거리를 찾으면 그의 영혼이 거리 위에, 거리 골목에 떠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파리의 긴 여름 해도 누엿 누엿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라서 석

파리는 한 때 젊은 날의 마르크스가 청년의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다. 파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사상 기본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전부터 파리를 다시 방문할 경우 그의 거리를 찾아 보고 싶었다.

마르크스가 한 때 거주했던 주소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전철역에서 내려 한 잠을 걸어야 했다. 해 넘어가기 전에 그가 살던 곳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걸음을 재촉했다. 그 긴 거리를 아내와 나는 바빠 걸었다.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급히 걸었다. 늦여름이라 어느새 등에 땀도 배었다. 그러나 사상의 흔적을 좇는다는 설레임은 여행에 지친 하루의 피곤을 감내하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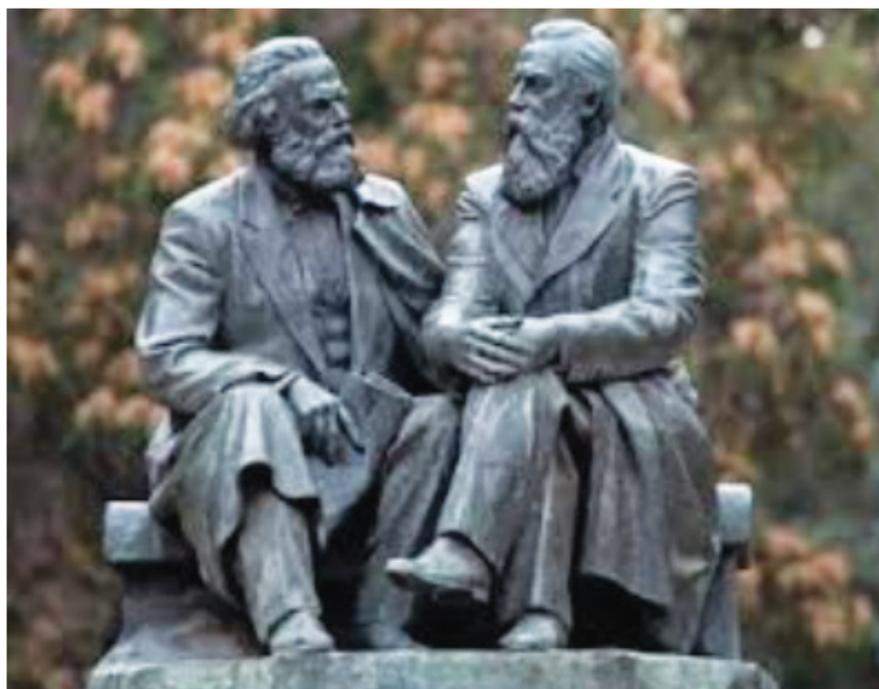
그 긴 골목길을 거의 15분 넘게 걸은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살던 번지수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다 못해 그 흔한 안내 표지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가 거주했다는 번지에는 다시 지은 듯한 6층 짜리 다가구 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옆에도 같은 층의 비슷한 건물이 다다다닥 붙어 길게 늘어 있었다.

그가 살았던 번지수의 건물에는 거리 이름과 번지수만 적혀 있는 네모진 사각 표지판만이 붙어 있었다.

“23 RUE VANEAU”
사각 표지판에 두 줄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국어로 말하면 “바노가 23번지”이다.

나는 조금 실망했다. “하다못해 여기에 ‘이곳이 마르크스가 거주했던 곳’이란 안내판이라도 붙여 놓을 일이지, 그러면 마르크스 흔적을 찾아 어떤 거리에서 온 여행객에게 위안이라고 줄 터인데...” 라고 중얼거렸다.

아무리 둘러봐도 마르크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엿누엿 넘어가는 석양처럼 그의 이름은 이곳 사람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열흘간 끝장 토론을 하며 평생의 동반자 관계가 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모습을 표현한 동상. 독일 베를린에 있다.

청년 마르크스가 살았던 바노가 23번지 기념 유적은 커녕 흔한 안내판 하나 없어 유령이 된 그의 철학적 통찰을 반추하다

에게는 잊혀진 이름 뿐인 것 같았다. 그저 마르크스를 기억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만 마르크스의 유령이 떠돌 뿐이었다. 마치 저 유명한 ‘공산당 선언’의 인상 깊은 첫 구절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처럼.

나는 다시 중얼거렸다. “공산주의도 죽고, 마르크스도 죽고...”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저 그 명령만 공중에 하늘거릴 뿐이다. 마르크스는 20대 한창 혈기 왕성하

던 나이를 파리에서 보냈다. 여기서 그는 매일 저녁 내가 서 지금 있는 그 집에서 나와 세느강 넘어 루브르 박물관 인근 카페 거리로 걸어가 그 카페에서 파리의 급진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어울렸다. 연기 자욱한 카페 안에서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이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며 자기 생각을 정렬해 나갔다. 엥겔스와의 운명적 만남도 이 거리의 한 카페에서 었다.

그럼에도 프랑스에 마르크스의 유적이 전혀 없는 점이 흥미로웠다. “파리

에 데카르트의 거리는 있어도 마르크스 거리는 없다.”

19세기 전반 파리는 자유와 평등의 열망이 들끓는 도시였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제도화되었으나, 이후 왕정복고 체제는 다시 구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했다. 구체제에 저항하여 1830년과 1848년 두 차례 혁명이 일어났지만 공화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프랑스 대혁명기의 공포정치의 기억에 두려움을 느낀 부르주아는 하층 민중의 집권을 막기 위해 선거권을 극소수 부유층에 한정했고, 당시 수상 기조는 “투표하고 싶으면 부자가 되라”고 말하며 보통선거 요구를 거부했다. 인구 2,800만 명 중 17만 명만이 투표권을 가진 현실 속에서 혁명의 기운은 다시 고조되었다.

특이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기억과 추억은 곳곳에 아직도 짙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지워져버렸지만, 대혁명의 웅장한 동상같은 분위기는 곳곳에 높여 서 있다. 프랑스관 팬티온 건물, 바스티유 광장, 콩코드 광장 등등.

파리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대혁명의 잔영만 잔뜩 남아 있지 마르크스의 유령은 알씬도 없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까스로 “왜 마르크스의 거리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 시민의 토론 마당을 찾을 수 있었다. 한 시민이 던진 질문이었다. 시청 대답은 간단했다.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프랑스에서 마르크스가 기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적 공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 특히 1794~95년 공포정치 아래에서 상퀼로트가 주도한 급진적 가격 통제와 평등 정책은 대규모 처형으로 이어졌



3월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세계 시선이 쏠린다

오는 3월21일 전세계 K팝 팬들의 시선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쏠린다.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이 군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며 500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컴백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에 실시간 생중계된다. 주최 측은 “지구촌 5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BTS의 귀환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월드컵이나

해 왔는데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긴 ‘아리랑’을 타이틀로 광화문에서 새로운 10년을 향한 포문을 열며, K컬처의 저력과 신선한 비전을 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은 영국 출신의 ‘라이브 이벤트 거장’ 해미시 해밀턴이 감독을 맡았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폐막식 총연출을 비롯해 그라미 어워드, 오스카, 에미상 등 세계적인 권위의 시상식과 8회 이상의 슈퍼

올 뿐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경영으로 음악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서울대 역사상 대중문화 분야 인사로는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시혁 동문은 술한 히트곡과 스타들을 배출하며 한국 가요계의 최정상급 작곡가와 프로듀서로 입지를 다진 뒤 2005년 연예기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2013년 BTS를 데뷔시켰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미학이 뭔지도 모른채 미학과에 진학했는

데 미학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당시 쌓은 인문학적 소양은 눈앞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콘텐츠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BTS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곧 세계인의 시선이 쏠릴 광화문의 역사와 오늘의 모습을 지면으로 여행해본다. 한국 국가유산청은 2023년 일제강점기 때 전차 선로가 깔리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광화문 정문 앞 월대를 복원해 궁궐 안과 궁궐 밖 광장을 하나로 연결했다.

방시혁(미학과 91) 동문이 키워 낸 글로벌 스타 BTS

경복궁 · 광화문 무대로 ‘아리랑’ 타이틀 컴백 공연

넷플릭스, 190개국 생중계... 세계 5천만명 시청 예상

올림픽 · 슈퍼볼 연출 해밀턴 합류, 역대급 무대 예고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에 비견되는 역대급 규모의 글로벌 생중계 이벤트”라고 밝혔다.

BTS는 경복궁 근정문 내부에서 출발해 흥례문과 새롭게 복원된 광화문 월대를 지나 광장 북측 메인 무대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광화문의 상징적 의미를 전세계에 알린다.

공연의 공식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다. BTS는 그동안 글로벌 팝스타로 성장하면서 한국적 추임새와 국악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

불 하프타임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해밀턴 감독은 넷플릭스와의 인터뷰에서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공연은 단순한 K 팝 스타의 복귀 무대를 넘어, K컬처의 정점을 보여주는 문화적 선언이자 전 세계가 동시에 체험하는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BTS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키워 낸 키운 방시혁(인문대 미학과 91)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였



2022년 타임지가 뽑은 '가장 영향력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돼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며 기념 촬영을 한 BTS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정 가운데).

고, 이는 곧 온건 공화정으로서의 반동을 낳았다. 이후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에서도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연합해 혁명을 이뤘지만, 성공 직후 부르주아와 보수적 농민층은 소유권 박탈과 국유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온건 체제로 선회했다. 공산주의적 급진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복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내가 마르크스의 저작에 끌린 첫 이유는 그의 문장력이다. 그는 뛰어난 사상가였다. 풍자, 조롱, 해학, 독설이 난무하는 그의 저서는 읽는 사람을 흡인한다. 게다가 20~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보여준 역사적·철학적 통찰은 탁월하다.

마르크스의 철학적 통찰을 볼 수 있는 한 문구는 런던 하이게이트 공원 안에 있는 마르크스의 묘비에 적혀 있다. “철학자들은 이제까지 세계를 단지 여러가지로 해석해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중 마지막 결론 부분의 11번 테제이다.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적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헤겔에 대한 비판이자 반동이었다.

헤겔은 철학자의 임무를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찾아들면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라고 말했다. 이에 마르크스는 “부엉이가 황혼에만 날아 오른다면, 역사의 한낮에 벌어지는 억압과 착취에는 누가 맞설 것인가?” 라

는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항변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철학의 실천적 해석의 원리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첫번째 테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이제까지의 모든 유물론의 주된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단지 ‘객체 또는 관조’의 형식하에서만 파악되고, ‘감성적인 인간 활동, 즉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에게서 능동적 실천적 힘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철학을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전환시켰다.

마르크스의 풍자, 해학, 은유, 조롱은 그의 저서 도처에 넘쳐난다. 한가지를 소개하면 마르크스는 “보잘것없는 인물도 시대가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 라며 루이 나폴레옹(1848-1870 기간 프랑스 대통령이자 황제)을 조롱하였다. 그는 <루이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에서 “헤겔은 어딘가에서 모든 위대한 세계사적 사실들과 인물들은, 말하자면, 두 번 등장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로베스피에르를 대신한 루이 블랑, ... 삼촌을 흉내 낸 조카.” 여기에서 삼촌은 프랑스 대혁명기의 나폴레옹이고, 조카는 1848년 2월 혁명의 실패 후 집권한 루이 나폴레옹이다.

그러나 나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루이 나폴레옹이 거주했던 방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마르크스의 조롱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만일 프랑스인들이 루이 나폴레옹을 형편 없는 무능한 군주로 평가했다면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의 상징이며 수많은 인과가 물려오는 루브르 박물관에 그가 살던 방과 집기, 옷 등을 거의 그대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전시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루이 나폴레옹은 집권 내내 프랑스를 크게 발전시켰다. 오늘날 질서 정연하고 잘 구획된 거리, 깨끗한 하수구 등 오늘날의 파리 도시 원형은 그가 재임할 당시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다만 마지막 보불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그의 평가에 결정적 타격이었다.

마르크스는 철학자인가 경제학자인가? 내가 자본론 첫 페이지를 열어 보았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아, 이것은 경제학 책이 아니라 철학 책이구나” 라는 탄식이었다.

자본론의 저술 동기 및 목적은 자본주의의 폐해와 아동 노동의 비참성 등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비참함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자본(capital)’의 본질을 탐구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저술의 큰 분석틀은 철학적인 것이다. 플라톤 - 헤겔 -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일종의 이데아론적인 것이다.

이 점은 마르크스 비판자 칼 포퍼도 <열린사회의 그 적들>에서도 지적하

고 있다. 포퍼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본질주의 이론, 즉 형이상학적 이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가격의 배후에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이고 실재하는 참된 가치이고, 가격은 그것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이 모든 생각은 플라톤의 관념론의 영향을 뚜렷이 보여 준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기야 말로 데이터에 기반한 자본론을 썼다고 다소 자랑스레 말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과 비판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칼 포퍼의 비판과 에릭 프롬의 칭찬이 눈길을 끈다. 이들의 평가는 정 반대이다. 왜 그럴까?

포퍼는 그의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마르크스를 플라톤, 헤겔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전체주의 사상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했다. 이들 철학자들이 역사주의란 역사의 필연성을 필치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했다는 것이다.

반면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마르크스의 인간 개념>에서 마르크스를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고자 했던 “인간 해방의 철학자” 로 보았다. 그는 마르크스가 “인간이 물질적 생산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적 존재가 되는 사회” 를 꿈꾸었다고 했다.

“사람이 오죽하면 글짓냐” ...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윤정아
(생과대 소비자학과 95)

“천수관음보살만 팔이 천개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도 천개의 얼굴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몇개의 얼굴을 보았을까? 내 평생 알아온 얼굴보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얼굴이 더 많은 것도 같았다.” p. 249

정지아 작가의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딸이 마주하게 된 아버지의 사람들을 유쾌하고 정겹게 그려낸 소설이다.

격랑의 한국 근대사를 정면으로 부딪히며 살아 낸 생전의 아버지는 딸의 눈에는 그저 시대착오적인 우스운 혁명가이자 물정 모르는 촌뜨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찾은 수많은 조문객들의 회상 속에 비춰진 아버지는 이념의 틀에 갇힌 투사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다정하고 오지랖 넓은 사람이었고, 시대의 모순에 시달리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한 평범한 인간이었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이에게조차 “사람이 오죽하면 글짓냐”며 이해하려 했던 아버지는, 마을의 소외된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람대접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 주었던 아버지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빨치산이라는 붉은 낙인 속에서의 감시와 제약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빨치산 아버지로 인해 삶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던 그의 딸은 조문객들의 추억에 비친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마주하며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해방된다.

죽음의 역설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려 허무함만 남을 것 같은 다소 두려운 단어가,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와 유쾌한 시선에 힘입어 해방의 모티브가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본인과 딸에게는 물론 아버지의 삶 한 자락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조문객들에게도 묵은 감정으로 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오해, 원망, 미움, 분노와 같은 어두운 감정은 더 이상 상대의 실체를 마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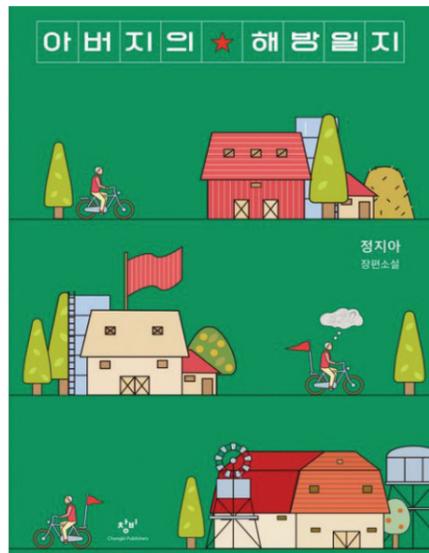
수 없다는 상실 앞에서 연민과 사랑으로 탈바꿈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젊은 날의 선택에 따른 삶의 궤적을 이분법적인 이념에 가두지 않고 사람의 도리라는 보편적 틀에서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포용력을 발휘했다.

어쩌면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른 관점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나의 죽음을 떠올릴 때 더욱 명료해지는 삶

리를 힘겨운 감정에서 해방시킨다.

사람이니까 욕심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는 것이고, 사람이니까 급하면 뺨도 치고 것이재. 그걸 사람이 이해 못 해 주면 위쩌냐. 그게 사람냄새고 이해해 불면 안쓰럽지 않은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도 없어야. 되는 것 하나 없는 세상을 버텨 온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의 평생을 통해 이렇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알게 된 아버지
오해, 원망, 미움, 분노는 연민과 사랑으로
2022년 출간, 문학상 휩쓴 대박 베스트셀러



정지아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표지.

의 우선순위, 타인의 죽음을 맞이할 때 되짚어보게 되는 그와의 역사와 그를 매개로 한 새로운 인연과의 조우, 타국의 이름모를 이의 죽음을 뉴스로 접할 때 느껴지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애도.

죽음이라는 화두는 오늘과 여기에 매몰된 나의 시선을 먼 미래와 과거, 가깝고 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상상하고 느끼게 만든다. 나를 타인과 연결짓고 삶을 관조하게 한다. 그 앞에서 부글부글 갖가지 감정으로 들끓고 있던 나의 마음은 찬물 한 컵을 끼얹은 냄비 속 물 마냥 고요를 되찾는다.

“사람이 오죽하면 글짓냐.” 아버지의 십팔번 말씀에 삶의 지혜를 느낀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타인으로 내 마음이 다친 날 되뇌일 이 한마디는 우

게 이야기하는 듯하다. 인생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 인간관계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고.

죽음이라는 유한함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오늘,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인연을 맺은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내 삶의 한 부분을 함께해 주어 행복했노라고, 나로 인해 너의 삶 역시 조금이나마 화사했기를 바란다.

***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2022년 출간 이후 큰 화제를 모으며 ‘사람이 오죽하면 글짓냐’라는 유행어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작품이다. 출간 두 달 만에 10만 부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23년 만해문학상과 5·18문학상을 받았다.

▶ 화제의 동문 유튜버 ‘이교수의 책과 사람’

▶ ‘이교수의 책과 사람’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bookandsaram

“사유 넓혀줄 책 골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려요”

이현정(인류학과94)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대학 강단에서 인간을 연구해 온 인류학자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난다.

오랫동안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 온 이현정(인류학과 94·사진) 인류학과 교수는 “책이야말로 당연하게 여겨온 세계에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다. 책과 사람, 인문학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이현정 교수에게 유튜브 채널에 담긴 사유의 방향을 들어봤다.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에서 자살, 우울증,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고통을 연구해 온 문화인류학자입니다. 2022년부터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책

과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양서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북튜브(Book-tube)로, 책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함께 사유하는 공간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풀어낼 때 특히 의식하시는 원칙이나 태도가 있다면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반인의 언어로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이해력과 사유의 깊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고민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면 다소 도전적이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사유의 지평을 넓혀 줄 수 있는 책인가’입니다. 한 분야에 몰두하지 않고 시공간과 분야를 넘나드는 독서를 지향하고, 다양한 영역의 책을 소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독서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순간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읽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작품속 인물들의 모습은 제가 배워온 도덕과 정상성의 기준을 흔들었습니

다. 그 경험을 계기로 인간의 내면과 ‘비정상’이라 규정되는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의 연구 주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독자들이 책을 통해 가장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요.

“‘공감’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읽고 나서 생각의 여운이 오래 남는 책입니다. 얇고 담담해 보여도 며칠간 마음을 흔들고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야말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책, 나와 무관해 보이는 책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지치셨다면 마음이 이끄는 책 한 권을 골라 보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이교수의 책과 사람’에도 들러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정윤 기자

What simple pleasures of life do you truly enjoy?

호민선 (상대 59)

God must have given me a wonderful habit of endless curiosity. Therefore, I have rarely been lonely or be bored throughout my life as far as I am healthy. During several times of my life when I was very sick and feel very weak, I felt lonely.

When I was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I wondered why my older brother (3rd grader) often closes his eyes and tried to fully memorize something complicated. I asked him again and again. He finally told me that I will have to memorize "Multiplication Table" when I reach 3rd grade. I stayed close to him to find out what it was, and finally I memorized whole Multiplication Table.

Back to my classroom, teachings of mathematics was so easy that I couldn't concentrate. During the break time, I found a couple of grasshoppers and made them race against each other behind my notebooks. Suspicious teacher soon found out and asked me math question and he planned to penalize me if I answer incorrectly.

Since I have mastered 3rd class level of math, he cannot find wrong answer from me. He discussed this "problem kid with a talent" in teachers' meeting and teachers decided to have a special exam for kids to skip a grade if he or she passes that exam. Many took the exam and I was the only one who passed and skipped 2nd grade.

Early years of my life in New York City, I was always busy with something, but one of my friends, Mr. Yoo, visited me frequently and told me that he is bored and had nothing to do at this time. I enjoyed his visits, but I was wondering why he is bored, since I have rarely been bored. I always had something to do to satisfy my curiosity.

After he left, I usually started again something. One of those things was listening to the music. I listen to the various classical music, i.e., Symphonies, Concertos, Chorus, Gospel Songs, Operas, smooth pop songs, etc. etc. Sometimes, I was listening to music so long without knowing how many hours have passed.

Writing was not my favorite until I got much older. I began to write a "Spiritual Diary" from January 1, 2022 and continues until now. Of course, I miss certain days, but I catch up my writings for those missed days' portion. I started to write weekly essays in English from May 2022 as part of my Birthday subscription from my daughter,

Michelle. It was a burden to me since I was already writing Daily Diary in Korean at that time.

After I figured out that she made me write to prevent dementia, I enjoyed that writing. Sometimes, I had



Me with Young Searchers Club members at the top of the mountain in Seoul area.

difficulty to figure out the contents of my essay, but I began to adjust myself to the weekly topic and I could remember those things I forgot a long time ago: names, places, events etc. etc. I love to write letters, especially to somebody who needs my encouragement. My Christmas message is normally 2-4 pages of our family members' lives during the year. I am continuing this during the last 25 years, except one year when I was serving as a missionary in Turkey. Since there are fewer replies year by year, I might stop this 25 years old habit, but still there are at least a few people who enjoy to read it.

Reading books is another habit. During the last 40 years, it is mostly Christian books and Bible most of the time. Some of the books I read twice or three times because it was so good. Certain TV programs fascinates me. Award shows always excites me. I also enjoy certain movies or sitcoms, and lectures but trying to cut down this habit.

From the early part of last year, I started to watch political programs of Korea. After living in the USA for more than 50 years, it is very refreshing to know that Korea became a very developed country but certain aspect of Korea is still underdeveloped, such as politics.

Going to movies has been my old favorite. I remember my freshman and sophomore days in college when I go to movie houses almost 3 times a week, sometimes skipping my classes at college. Because I could not afford it financially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certain movies were

prohibited for high school students. I went to see foreign movies as part of my cultural education and to satisfy my various curiosities.

Another thing I enjoy is food made by my wife. She was not an excellent

she became the best cook I have ever known. Music, writing, reading, watching TV, movies, and eating good food are the simple pleasures of my life which I enjoy. Therefore, I rarely do not have any extra time to

Life Guided by Endless Curiosity and Intellectual Pursuit

From Skipping a Grade in School to Writing Essays at 86

Finding Joy in Music, Writing, Movies, and Constant Learning

cook when she was young. She had tremendous curiosity on every kind of dishes. I was the one who tasted her finished food first and make comments. Throughout the years

be bored or lonely.

Meeting people or go to the party are fun for me, but staying at home by myself is also my simple pleasure of life, too.

What are your recent favorite jokes?

When a joke is spoken at the right time to the proper audience, it is very effective. When I was living in New York City area, especially in 1980s-2000s, I was a popular emcee of year-end parties, such as High School Alumni or College Alumni or community parties.

To be an effective emcee, I used to gather many jokes during the whole week to be used flexibly based upon the kind of group of the people at that Party. Sometimes, traditional old jokes are effective and on other times, contemporary jokes are more proper. Anyway, I used one as an ice-breaker or to gather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There is no single favorite joke I like at this time. My only important criteria is to avoid any vulgar jokes. Therefore, I have each two jokes for Christian audience and two for general audience.

1. There was a weekly Bible Study and one member invited a non-Christian friend to that study. Topic of that day's study was "Birth of Jesus by Virgin Mary." When the Group Leader read and explained those verses in the Bi-

ble, everybody seemed to accept the explanations except the newcomer. He could not understand it and begin to ask questions after questions in logical and scientific way how a virgin can deliver a baby, etc. The member who invited the newcomer could understand and believe it himself, but could not explain to his friend. Finally, he could not tolerate any more by saying "Hey, you! Mary is saying that her husband believed it and it did not bothered him at all, why are you bothered anyway?"

2. One large family from Korea was traveling in the USA, and all went to McDonalds for lunch. The father boasted that he will take care of all the orders, therefore, you all sit down and wait. He ordered many lunch items, then was asked by the cashier, "For here or to go?" He c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question, therefore, he hesitated. "For here or to go?" A louder question again from the cashier. Suddenly, he turned around to the family and shouted "He wants four of you stay here and two of you have to go!"

Alumnus Minsun Ho wrote four stories for this piece, but due to space limitations, we are including only two in this newsletter.



“동문 한 분 한 분의 성원으로
함께 도약하는 미주동창회”

contact@snuaa.org

삶의 단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둥글둥글한 친절



허용웅 토마스
(상대63·뉴욕)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서너 곳의 베이글 가게가 있다. 그런데 나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이들 가까운 베이글 가게를 마다하고 일부러 먼 곳을 찾아가다. 이유는 그 가게의 친절함 때문이다. 내가 들어서면 그 가게의 백인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면서 “11불 60센

트”를 외친다. 사연인즉슨 우리 부부가 항상 똑같은 주문을 하기 때문이다. 즉, 구운 통밀 베이글(Toasted whole wheat bagel) 한 개에 저지방 야채 크림치즈(Low fat veggie cream cheese)를 듬뿍 바르고, 커피 두 잔을 곁들이는 구성이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음식을 자리까지 가져다준다. 그러면 우리는 2불의 팁을 주고 서로 덕담 한마디씩을 건넨다.

“Have a wonderful day!” , “You too!” 그네들의 친절함 미소에는 꾸며낸 가식이 없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아침의 대기처럼 신선하고 순수하다. 종업원 중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손님들을 친절히 응대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노라면 아침의 활

력이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베이글 맛이야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그러나 그들의 친절은 베이글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며 풍성하게 느끼게 해준다. 가끔 베이글 가게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 그때 그들 역시 서로 거의 모르는 사이이지만, 가게의 친절함 분위기 때문인지 묘한 연대감을 갖는 것 같다.

또한 손님들이 기다리는 것을 조금 해하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이 가게의 친절함 미소가 손님들을 부드럽게 통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친절함 베이글 가게에서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둥글둥글한 베이글 같은 친절을 배우고 싶다. 사실 우리는 이제 베이글 반 토막밖에 더는 못 먹는 나이가 되어 버린 게 아닐까?



문성길(의대 63)
워싱턴DC 전 동창회장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참 쉽지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어려운 질문이라곤 생각되지 않는다.

나 자신만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태도와, 나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 특히 소외되고 기댈 곳 없는 약한 이들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 큰 틀로 나누어질 것이다. 개인의 영광과 주위 가족, 친지, 자신이 소속된 곳만을 위한 삶이라면 세상에 기여하기보다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탐욕으로 연결됨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무수히 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공직에는 부적격한 무리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다. 이런 부류들의 특징은 걸핏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를 앵무새처럼 외친다는 점이다. 겸손하게 자신만을 위

빛과 소금으로 남은 삶, 욕망으로 저문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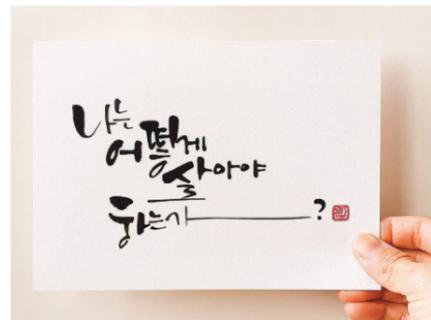
해 앞에 나서지 말고 맑은 바 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행복함을 맘껏 즐기시라. 그리하여 식솔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라. 딱 거기까지임을 인식하시라. 주제넘게 탐욕이 발동하여 남들을 대변한답시고 공직에 나서려는 순간부터 자신의 과멸은 물론 공동체, 사회, 국가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반면 자신보다는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남다르다고 여겨진다. 자신보다 못한 약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불사르려는 이들은 숭고함으로 남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은 너무도 당연지사라 하겠다. 대표적으로는 제대로 된 훌륭한 각계 종교 지도자들, 진정한 사

회 지도층들, 또 뒷전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분이 라 하겠다.

이 근래 조국 한국에서 두 분 전직 총리께서 너무도 대조되는 여정과 운명으로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일생 탄탄대로 부귀영화를 누린 분이 아마도 꽤 오랫동안 차가운 감방

에서 영어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백세시대에 비교적 짧은 수명으로 타계하여 많은 이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나,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함에 일생을 바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이를 보며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명약관화 하겠다.



동문 시



나연수
(사대 54·메릴랜드)

인생

삶은 빈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왔다.

되돌릴 수 없는 젊음과 세월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 살아왔음 자체가 이미 큰 선물이었음을.

그러니 남은 날들은 후회보다 감사로 욕심보다 따뜻함으로.

지금 여기, 숨 쉬는 이 순간에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관악캠퍼스에 ‘박완서 아카이브’ 개관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 한국 문학의 거목, 고 박완서 동문의 문학적 발자취를 기리는 ‘박완서 아카이브’가 문을 열었다. 작가의 서재를 고스란히 옮겨오고 유족이 기증한 육필 원고와 유품 470여점을 전시했다. 박 작가는 1950년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모교는 2006년 그의 문학적 성취를 기려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서울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문 작가로 꼽히는 그의 문장 중 한 구절을 소개한다.

“일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가. 그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수필집 《모든 것에 따뜻함이 있다면》중에서



과학의 비약적 발전, 인류도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오순문 (사대 68 · 뉴욕)

인류는 불과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동물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활과 창에서 시작해 증기기관, 전기의 발견, 반도체와 컴퓨터, 그리고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만 년 동안 인류가 성취해 온 발전은 경이롭습니다. 특히 20세기는 ‘과학의 세기’라 불릴 만큼, 단 100년 동안 생산된 지식의 양이 이전 인류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이후의 세상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활짝 열리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난치병을 치료하며, 핵융합이나 소규모 원자로(SMR)가 에너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수만 년 걸릴 일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미래에도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우리

는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인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 올리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NASA를 창설하고 과학교육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당시 한국 대학에도 소개된 혁신적인 실험 교과서의 첫 장은 예상외로 매우 단순한 ‘촛불 관찰’이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양자역학의 궤도



함수 대신 촛불이라니,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불꽃 색깔의 층위, 녹아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왁스, 그윽음의 생성 등 관찰력이 뛰어난 이들은 수십 가지의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왁스가 열에 녹아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가 기체가 된 후 산소와 만나 연소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핵심인 ‘Small World’의 탐구입니다.

과학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에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관, 주관적 망상을 배제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물을 객관화하는 것이 과학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에 소금 적당량을 넣었다”는 감각적인 표현은

“물질문명 토대 위에 인간 중심 정신문명 함께 꽃피워야”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소금 250g이 25.5℃의 물 350g에 넣어졌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물질인 소금을 주어로 삼고 형용사 대신 숫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성은 인위적 조작이나 주관적 주장이 발붙일 수 없는 과학계의 엄격한 약속입니다.

뉴턴 역학은 질량과 가속도로 지구와 별들의 궤도를 측정하고 비행기를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시(Macro) 세계의 질서를 정립한 것입니다. 반면 보어의 원자 모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Micro)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뇌세포 신경망의 모

양과 우주의 은하단 가스줄기 모양은 프랙탈(Fractal) 구조처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뉴턴 역학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빛과 전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수학적 과동함수로 포함시킨 양자역학이 출현했습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는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을 확률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대 이후 우주항공과 정밀화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제 비가 율 확률이나 주식 시장의 흐름을 확률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래 과학의 흐름을 보면 기존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과학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세기 급속한 발전의 반작용으로 자연 파괴, 자원 고갈, 기후 위기,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비례하여 그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문명의 토대 위에 인간 중심의 정신문명이 함께 꽃피는 ‘대항해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소중한 과제일 것입니다.

조재성 박사의 두 도시 이야기



조재성 (건축학과 77)

LA 포럼 회장·도시비평가

광화문 광장과 LA 그랜드팍

“광장은 장식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도시의 심장
심장이 박제되는 순간 도시는 생명력 잃어 버려”

광장은 도시가 스스로를 말하는 장소이다. 한국 사람에게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교차하는 한국 현대사의 공적 시간이 만나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광화문 광장’이다. 미국에 살고있는 교민이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도 대부분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걸어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광화문 광장’은 잘 설계되고, 질서정연하며, 안전해 보이지만 스스로를 표현하는 서사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

‘광화문 광장’은 역사적으로 ‘머무는 장소’라기보다 ‘통과의 축’이었다. 조선의 도성 구조 속에서 이곳은 왕권과 우주 질서를 가시화하는 의례의 공간이었고, 근대 이후에는 식민 권력과 국가 권위

가 재배치한 직선의 무대였다. 시민의 일상은 언제나 이 공간 바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16-2017년 시민들은 전세계에 촛불집회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다. 허가 없이 모인 100만이 넘는 시민의 집회는 ‘광화문 광장’을 일시적으로 아테네의 ‘아고라’로 전환시켰고, 그 순간 공공성은 설계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후 ‘광화문 광장’은 다시 정비되었고,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멀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기념 프로젝트 ‘감사의 정원’ 건설 논란은 공적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제나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기억이 조형물로 응결될수록, 광장은 발언의 장이 아니라 관람의 장으로 전환된다.

도시역사학자 루이스 면포드는 살아

있는 도시를 “삶이 먼저 말을 거는 도시”로 정의했다. 그에게 광장은 장식 이 아니라 순환의 기관, 즉 도시의 심장이었다. 심장이 박제되는 순간 도시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오늘의 ‘광화문 광장’이 직면한 위함은 바로 이 박제의 순간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성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종종 정치적 갈등과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성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광화문 광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LA의 ‘그랜드팍’처럼, 관리된 공공공간도 이벤트가 있을 때만 활성화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공간을 즐기는 시민이 없는 장식적 공간으로 남아있다. 시민은 상시적 주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존재가 되고, 질서와 미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배제는 현대판 ‘공공 공간의 종말’일 뿐이다.

‘광화문 광장’과 ‘그랜드팍’을 둘러싼 관리의 강화는 단지 일상적 도시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메가 이

벤트가 도시로 가져오는 보안의 정치와 깊이 맞물려 있다. LA가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세계 무대에 올리는 축제를 준비 중이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공공 공간은 종종 ‘예외 상태’로 분류된다. 보안 동선, 출입 통제, 집회 제한, 감시 인프라는 ‘일시적 필요’라는 명분 아래 도입되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도 흔적과 관행으로 남아 일상을 규율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의 미래는 상징성이 강한 역사 기념물의 설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미완의 상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용기에 달려있다. 영구적 기념물보다 가변적 사용을, 허가된 행사보다 일상적 체류를 허용할 때, ‘광화문 광장’은 다시 스스로를 표현하는 공간이 된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연되는 공간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광장은 완성될수록 침묵한다. 그리고 도시는 언제나 그 완성에 균열이 생길 때 다시 살아 움직인다.

‘광화문 광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 균열이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천의 세상만사

식탁에 앉아라, 먹잇감이 안되려면...



김학천 (치대 71 · 남가주)

기원전 6세기, 이속이 남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자와 여우, 당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먹잇감을 잡은 후 분배할 시간이 됐다. 당나귀가 순진하게 말했다. ‘공평하게 셋으로 나눕시다.’ 그러자 사자가 당나귀를 단숨에 잡아먹었다. 그리고는 여우에게 물었다. ‘네가 나눠보거라.’ 여우는 재빨리 거의 모든 것을 사자 앞으로 내밀었다. 당나귀는 분배라는 식탁에 앉았지만, 그곳에서 제 몫을 챙길 발언권을 가질 힘이 없었고 결국 메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1500년이 흐른 16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피렌체. 그곳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강자들이 싸울 때 중립을 지키려는 자는 승자에게는 먹잇감이 되고 패자에게서는 경멸을 받는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프랑스, 스페인, 신성로마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작은 도시국가들은 이 세력 다툼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들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영토를 분할 당할

것인가. 어느 것도 아닌채 방관하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고립이 되었고 고립은 곧 정복당하는 운명을 의미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운명은 우리 행동의 절반을 지배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는 식탁에 앉으려는 의지가 바로 자신들 손에 쥐어진 나머지 절반이란 얘기다.

1993년, 중동 문제를 다루는 학술지에 짧지만 강렬한 제목이 등장했다. ‘Lebanon: At the Table or on the Menu?’ (레바논: 식탁에 앉을 것인가, 메뉴에 오를 것인가?)

레바논은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다.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이 레바논의 미래를 논하는 식탁은 있었지만, 정작 레바논 자

신은 그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다. 즉, 자신의 운명을 논하는 회의에서 레바논은 주인공이 아니라 안전일 뿐이었던 거다.

이 표현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노동운동가, 여성운동가, 시민권 운동가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하면, 우리는 메뉴에 오른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자들의 절규이자, 참여를 향한 선언이었다.

지난 1월20일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다보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 끼어있는 중견국들의 운명을 논하는 자리에서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뉴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일갈은 2500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21세기 국제정치 언어로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중립은 안전이 아니라는 것. 당나귀는 공평함을 믿었고, 레바논은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힘이 균형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방관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던 거다.

둘째, 참여는 권리가 아니라 투쟁이라는 것. 여우는 살아남았다. 사자의 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나머지 절반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셋째, 연대는 생존 전략이다. 카니가 강조한 것은 중견국들의 협력이었다. 혼자서는 식탁에 앉을 힘이 부족해도 함께라면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게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방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내는가?

물론 모든 식탁에 앉을 필요는 없을 거다. 때로는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지만 내 운명이, 내 미래가 결정되는 그 자리만큼은 비워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2500년 전 이속이, 500년 전 마키아벨리가, 그리고 오늘 카니가 말했듯이, ‘식탁에 앉지 못하면, 우리는 메뉴판에 오르기’ 때문이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그는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견국들이 연대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더 높은 법’이 다스리는 나라

파파는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다. 일흔을 앞둔 나이지만 2층 지붕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 오르내린다. 그 또래라면 고소공포증부터 걱정할 법한데,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모습조차 경쾌하다.

그의 파트너 알베르토는 이른바 ‘웻백(wetback)’이라 불리는 밀입국자다. 한밤중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 등이 흠뻑 젖은 이들을 가리키는 속어다. 동유럽과 멕시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두 사람은 십수 년째 페인트 작업을 함께하며 찰떡같은 팀워크를 자랑한다.

파파에게 물었다. 고향이 그리지 않느냐고. 주름진 얼굴에 잠시 아련함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난 미국이 훨씬 좋아요.” 이유를 묻자 짧게 답했다. “자유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한때 소련의 연방이었다. 전체주의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그에게

자유는 추상이 아니라 삶의 체감이었을 것이다.

강한 억양에도 영어가 유창한 파파는 이민 전 교사였다. 지금은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지만 표정엔 불만이 없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듯하다.

알베르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미국의 뭐가 좋으냐” 고. 그의 답은 뜻밖이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라서.” 멕시코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했다. 마약 범죄가 들끓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혀를 찼다. 대통령의 호화저택 이야기를 꺼내며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고 되물던 그의 표정엔 냉소가 배어 있었다.

파파도 거들었다. “예전 우리 대통령 집 화장실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 과장일지라도, 그 말은 오래 남았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경구를 그는 몸으로 겪은 셈이다.

두 사람을 알게 된 건 동네 HOA의 경고장 덕분이었다. 낡은 집을 제때 손

보지 못해 보수와 페인트칠을 하라는 최후통첩장을 받았다. 여러 견적 끝에 파파를 택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는 점이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작업 마지막 날, 인&아웃에서 햄버거를 두고해 나눠 먹다가 느닷없는 정치 토론이 벌어졌다. 알베르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대화는 북한의 감정은, 소련의 스탈린,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까지 번졌다. 파파는 트럼프가 푸틴과 닮았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독재의 기억이 그만큼 또렷한 탓일 것이다.

토론의 결론은 단순했다. “우리가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윌리엄 수어드가 떠올랐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헐값에 사들인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더 중요한 유산은 “미국은 헌법보다 ‘더 높은 법(higher law)’이 다스리는 나라” 라는 신념이었다. 여기서 ‘더 높은 법’이란 하늘의 정의, 혹은 인류 보편의 도덕을 뜻한다. 그는 노예제도가 아무리 합법이라 해도 정의에 어긋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어쩌면 미국의 건국 이념은 이 ‘더 높은 법’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파파도, 알베르토도,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차별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내란 재판으로 시끄러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법의 지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되새긴다. 지붕 위에서 묵묵히 페인트를 칠하던 두 이민자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거창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야말로 자유의 토대라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진실이었다. <문리대 66, 편집고문>

‘세계 TOP 100’ 7개 분야 포함 … 6개 국내 1위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대학 부문별 순위’에서 서울대학교가 총 7개 부문을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며 압도적인 교육·연구 역량을 증명했다. 서울대는 이번 평가 대상인 11개 학문 분야 중 심리학을 제외한 10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공학(38위), 컴퓨터과학(44위), 의학(45위), 교육(50위), 생명과학(55위), 자연과학(68위), 경영·경제(68위) 등 7개 분야가 세계 톱100 내에 포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국내 대학 간 비교에서는 총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세계 순위 50위에 오른 교육 부문을 필두로 생명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101~125위), 예술·인문(151~175위), 법학(151~175위) 부문에서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과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는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학 부문의 순위권 최초 진입이다. THE가 법학 순위를 산정한 2018년 이후 국내 대학이 해당 명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

영국 THE ‘2026 세계대학 부문별 순위’ 발표

공학(38위) · 컴퓨터과학(44위) · 의학(45위)

교육 · 생명과학 · 경영 경제 · 자연과학 등 포함

간 국내 법학계가 자국법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영문 논문 실적이 부족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국제 학술 교류

와 공동 연구를 활발히 전개해 얻은 결실로 분석된다.

비록 지난해 국내 1위였던 의학과 경영·경제 부문에서 선두 자리를 내주며 전체 국내 1위 부문 수는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6개를 기록했으나, 새롭게 진입한 법학을 포함해 전 부문에서 고른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 THE 세계대학 부문별 순위 국내대학 1·2·3위

부문	1위		2위		3위	
	대학	세계순위	대학	세계순위	대학	세계순위
교육	서울대	50	고려대	90	연세대	98
생명과학	서울대	55	KAIST	78	연세대	101-125
자연과학	서울대	68	KAIST	72	연세대	99
사회과학	서울대	101-125	연세대	101-125	고려대	201-250
예술·인문	서울대	151-175	KAIST	176-200	연세대	176-200
법학	서울대	151-175	-	-	-	-
공학	KAIST	32	서울대	38	연세대	67
컴퓨터과학	KAIST	32	서울대	44	성균관대	78
의학	성균관대	40	서울대	45	연세대	57
경영·경제	고려대	57	서울대	68	연세대	79
심리학	고려대	101-125	연세대	101-125	성균관대	101-125

신입생 3791명 입학…합격생 1명 이상 고교 939개

남학생 64.8%, 여학생 35.2%

서울시 출신은 1321명(35.4%)

서울대학교는 2026학년도 대학 신입 학생으로 총 3791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으로 2204명, 정시모집으로 1587명이 합격했다. 이번 통계는 최초 합격생 기준이다.

정시모집에서는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과 일반전형을 통해 1408명, 정원의 기외균형특별전형을 통해 179명을 선발했다.

정시 일반전형 선발 인원은 1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균형전형 152명, 기외균형특별전형(농어촌) 84명, 기외균형특별전형(저소득) 90명, 기외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북한이탈주민) 5명 순이다. 정시 지역균형전형과 일반전형, 기외균형특별전형(농어촌·저소득)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북한이탈주민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됐다.

수시모집에서는 지역균형전형 508명, 일반전형 1518명, 기외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78명을 선발해 총 2204명이 합격했다. 일반전형은 1만 3695명이 지원해 1518명이 합격했고, 지역균형전형에는 2419명이 지원해 508명이 선발됐다.

합격생의 출신 지역을 보면, 수시와 정시를 합산한 전체 기준으로 서울시 1321명(35.4%), 광역시 784명(21.0%), 군 지역 184명(4.9%)이 뒤를 이었다. 전형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시모집 합격생 중 서울시 출신 비율은 28.5%였던 반면, 정시모집에서는 45.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광역시 출신 비율은 수시 26.1%, 정시 13.7%로 나타났다.

수시·정시모집에서 합격생을 1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총 939개교로 집계됐다. 수시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760개교, 정시는 488개교다. 최근 3년간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했던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포함)에서도 합격자가 나왔으며, 군 지역 소재 고교도 포함됐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전체 합격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이 2067명(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자율형사립고 출신은 527명(13.9%), 과학고·영재고 출신은 590명(15.6%)이다. 수시모집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48.0%였던 반면, 정시모집에서는 63.6%로 높게 나타났다. 정시 일반전형만 놓고 보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고교 졸업 연도별로는 재학생 합격 비율이 전체의 71.5%(2711명)로 가장 높았다.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 비율

이 92.9%에 달했으나, 정시모집에서는 재학생 41.8%, 재수생 37.8%, 삼수 이상 17.6%로 N수생의 비중이 높았다. 조기졸업과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는 각각 전체 기준 2.1%(81명), 1.4%(54명)이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 수는 2016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다.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64.8%, 여학생이 35.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남학생 비율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수시모집에서도 남학생 비율이 58.8%로 과반을 넘었고,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정운 기자



2월 2일 관악캠퍼스에서 새내기 대학 팀파워 프로그램에 참여한 2026학번 신입생들과 재학생 멘토들이 합성을 외치며 첫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24,971 (as of 01.25.2026)

*지난 회보에 게재된 금액은 모교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뉴욕-조상근 (법대 69)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 57)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 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조지아-허지영 (문리대 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김일영 (의대 65)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김용재 (의대60)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남가주-박종수 (수의 58)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남가주-성낙호 (치대 63)
남가주-심화섭 (약대 61)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남가주-벤자민 흥 (문리대 53)
남가주-하기환 (공대 66)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남가주-한홍택 (공대 60)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남가주-정상진 (상대 59)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뉴욕-오인석 (법대 58)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대 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미시간-박용화 (의대 58)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북가주-전혜경 (문리대 67)
샌디에고-이면기 (공대 64)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시카고-조규승 (문리대 72)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이태영 (법대 60)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대 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故김병연 (공대 68)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故이종도 (공대 66)
남가주-김수영 (사대 57)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뉴욕-김현중 (공대 63)
미네소타-황호숙 (사대 65)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 DC-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DC-배성호 (의대 65)
워싱턴DC-최재귀 (미대 63)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조지아-임수암 (공대 62)
텍사스-이승화 (공대 03)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故오홍조 (치대 56)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대 65)
김성호 (법대 64)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영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재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운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3)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재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근희 (의대 64)
정희영 (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철룡 (의대 61)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황해룡 (공대 52)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종률 (사대 51)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병우 (문리대 69)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용호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8)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박현아 (공대 88)
변우진 (문리대 81)
송창원 (문리대 53)
조형준 (문리대 62)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대 65)
진성호 (공대 64)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故강영국 (수의대 67)
故최의필 (의대 53)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한재은 (의대 59)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대 78)
이은상 (상대 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헌민 (공대 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대 43)
故서휘열 (의대 57)
강연식 (사대 58)
공순욱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대 65)
이윤주 (상대 63)
최지원 (의대 61)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성성모 (사대 67)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중민 (공대 64)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와이

故최경운 (사대 51)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생과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기형 (상70)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수영 (사57) 김준택 (법58) 김영배 (미61) 김옥경 (사60) 김원탁 (공65)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김학수 (공76) 김희창 (공64) 나두섭 (의66)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문병길 (문61)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중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손학식 (공6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연숙 (간76)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창신 (법57) 이채진 (문55)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문섭 (공69) 장원경 (미73) 장윤희 (사54) 김준재 (법58)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예현 (상63)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환 (법69) 천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홍택 (공60) 한효동 (공58) 함송욱 (간호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황건홍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용 (미61) 권영국 (상60) 권정덕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옥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종원 (사58) 김현중 (공63) 리준우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박재순 (인문82) 김준재 (의63) 변간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성기로 (약57)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용길 (대학원69) 신응남 (농70) 안태홍 (농70)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은희 (간71) 윤영섭 (의57)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우 (의56) 이영범 (공71)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창호 (의63) 이흥우 (공50)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우 (법69) 함종금 (간66) 허영자 (약63)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선혁 (약59) 김형범 (문57) 박중건 (의56) 신정운 (공72)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약60) 이금하 (문69) 현건섭 (공55) 로키마운틴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문성인 (공88) 성용진 (치87) 주한수 (수의62) 황효숙 (사65) 미시간 오동환 (의65) 이상길 (의65)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연 (공64) 한영신 (석영6) 북가주 강재호 (상57) 김갑균 (공60) 김중현 (공60) 민병근 (공65) 박서규 (법56) 신규영 (공64)	위창호 (의67) 윤성희 (사58) 이정남 (공63) 전병련 (공54) 정지선 (상58) 정준임 (간67) 정한규 (의63) 최경선 (농65) 한상봉 (수의67)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최희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중주 (간69) 김용주 (공69)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백운기 (문리대56)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용수 (약51)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최희수 (문67)	한의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학과87) 홍청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운 (공72) 안승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희백 (의55) 정영자 (사60) 채투환 (공83) 최준한 (농58)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부근 (의52) 김응환 (치88) 김희주 (의62) 나연수 (사54) 남준일 (사69) 박상근 (법75) 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배성호 (의65) 백용현 (공64)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민석 (공89) 이선구 (문65) 이성배 (수의57) 이연주 (치88)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농62) 정평희 (공71) 최재규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중진 (의6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김현왕 (공64) 이중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현 (문리93) 서갑식 (공70) 텍사스 이승화 (전기공03) 천양곡 (의63) 황명규 (공61)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이민택 (의52) 이민우 (의61) 필라델피아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종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선자 (사60) 신성식 (공56) 안세현 (의62)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이상숙 (가정74) 정덕준 (상63) 정홍택 (상61) 주기목 (수의68) 지홍민 (수61) 최중무 (상63) 최현태 (문62) 하틀랜드 이주현 (미92) 정민재 (농70) 하와이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류유미 (약62) 박태우 (공64)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최성호 (문58) 하재청 (문67)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기형 (상70) 600 김상순 (상67) 300 김영배 (미61) 200 박중수 (수의58) 3,000 송태진 (공79) 5,000 양은석 (음70) 200 윤석철 (상60) 2,0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예현 (상63) 200 정임현 (간72) 1,000 송태진 (공79) 5,000 황현상 (의55) 2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우 (음65) 200 신응남 (농70) 3,000 조남천 (사59) 3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1,000 미네소타 강순건 (문57) 1,000 김권식 (공61) 40,000 황효숙 (사65) 4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 (공54, 56) 1,000 오동환 (의65) 400	북가주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시카고 최희수 (문67) 100 이용수 (약51) 250 서상현 (의65) 100 오레곤 박희진 (농78) 200 오하이오 故 정운행 (문53) 500 조지아 이종석 (의54) 100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500 권철수 (의68) 200 박평일 (농69) 500 서윤석 (의62) 200 정평희 (공71) 200 캐롤라이나 조철영 (의68) 200 테네시 김경덕 (공75)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500 이상숙 (가정74) 3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장학후원금 남가주 김중섭 (문66) 10,000 노명호 (공61) 10,000 박원준 (공53) 500 한홍택/백훈 (공60, 미61) 10,000 황현상 (의55) 10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10,000 황효숙 (사65) 1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 (공54, 56) 10,000 워싱턴 DC 이경애 (문58) 10,000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1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200 커네티컷 지부 후원 故유시영 (문68) 10,000 Brain Network 후원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50	김자성 (의79) 500 김원탁 (공65) 240 김홍일 (치62) 250 독고량/서정화(음80) 250 배재현 (공75) 500 서동영 (사60) 240 송미선 (음89) 500 이명선 (상58) 1,000 이병준 (상55) 1,000 이상대 (농80) 250 이승훈 (상74) 1,000 이종묘 (간호69) 240 이찬용 (치72) 500 이현림 (음81) 500 정국희 (의64) 1,000 최운화 (상78) 250 하기환 (공66) 1,000 하선호 (치81) 250 한태호 (문75) 500 Duo America 300 남가주 대학원동문회 1,000 SNU Foundation 1,000 북가주 이경희 (인문83) 500 뉴욕 석창호 (의66) 240 미네소타 황효숙 (사65) 1,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240	지부분담금 남가주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로키마운틴 200 미네소타 550 미시간 300 북가주 북텍사스 550 샌디에고 시카고 2,400 애리조나 200 알래스카 오레곤 유타 워싱턴DC 2,000 워싱턴주 800 조지아 800 중부텍사스 캐롤라이나 200 커네티컷 300 테네시 필라델피아 1,000 플로리다 하틀랜드 550 하와이 휴스턴 550
---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

남가주 CA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뉴욕 /NY.NJ
의료/병원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필라델피아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8대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임원 일동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INDEXED ANNUITY

- 시장 하락 시 원금 보호
- 지수 연동 수익 기회
- 평생 소득 옵션
- Tax-Deferred Growth
- 다양한 보너스 지급

14%에서 최대 20%의 보너스 지급 상품

5년간 불입금의 11% 보너스 지급 상품



Chris Kim & Lois Kim
(송미선, 음대 89학번)

213-500-0841

Annuity / 401K Rollover / IRA / SEP IRA / 생명 보험 / 롱텀 케어 / 암보험 / 메디케어

1 DUO America 대표이사 박수경 [서울대 소비자학과 84기]

역시, **결혼해 듀오**

인연의 확률로 높이자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 NY 212-915-7115

“십시일반의 정성,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하나로”



동문 한 분 한 분이 보내 주시는 십시일반의 정성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큰 힘**입니다.

동창회비 납부 및 문의 방법



동창회비 QR 코드



612-280-7589



snuaa.org



contact@snuaa.org



주소 (아래 참조)



Check payable to: SNUAA USA

서울대 미주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1,000 <input type="checkbox"/> 1/2 Size \$ 5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300 <input type="checkbox"/> 1/4 Size \$ 250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1년) \$ 500	<input type="checkbox"/> SNUAA 장학후원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업소 주소 업소 전화번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운(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디자인: 오은아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윤정아(생),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운(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위원: 김용현(상),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황효숙(사)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6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원경란(의대 84)
 T: (778) 883-1678
 estellewon@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加州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 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이등균(공대 75)
 T: (847) 644-4807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오충훈(자연대 81) T: (951) 795-8687
 peter.oh@asm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영훈(농대 95)
 kim0hun@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choi@hotmail.com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인구(농대 87)
 T: (404) 547-1859
 kevin@ikkimla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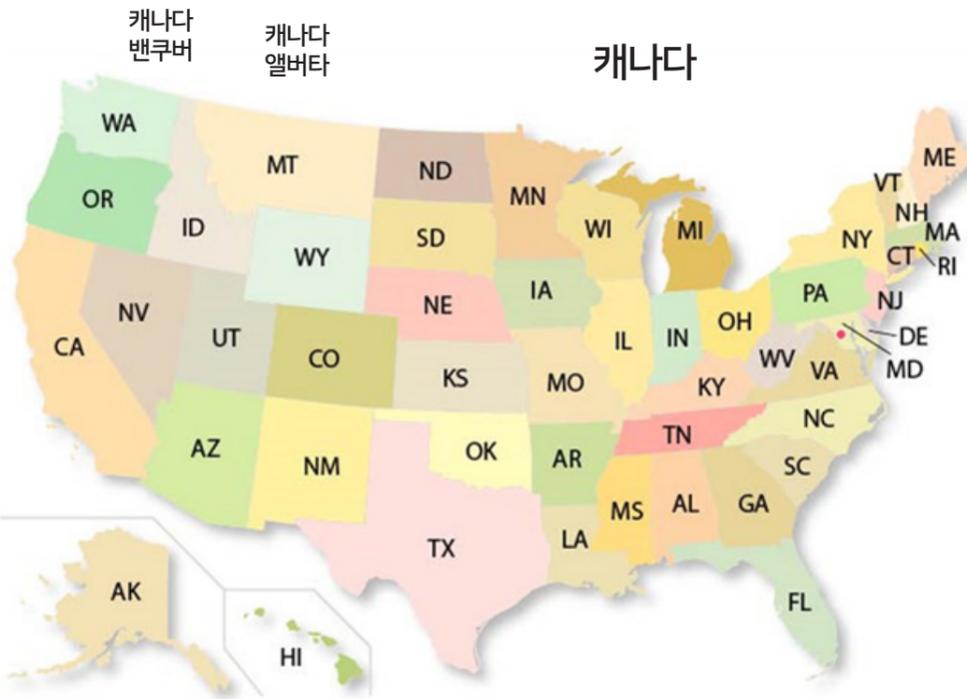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공대 69)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조동건(법대 65)
 T:
 dcho0806@bellsouth.net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 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

워싱턴 DC/MD/VA/WV (Jan~Dec)
 남욱현(경영대 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 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 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황효숙 회장단의 발전을 빕니다.

남가주 대학원 동문회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동문회에 참여하시어
소식과 소통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요!”

회장: 김수지 (03) | 부회장: 윤수현 (84) | 이사: 정 신 (92)

가입 문의

김수지 회장
949-426-0917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이병준 (상대 55)

